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허 경 진(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장안의 명승지 인왕산
- II. 인왕산의 네 구역
- III. 인왕산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 IV. 송석원의 변천사
- V. 결론

위항(委巷)은 “꼬불꼬불한 거리”나 “골목”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가리킨다. 지배층 양반들은 넓은 집에 살았으므로, 좁은 골목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피지배층이었다. 서울을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면 그 중간지대인 청계천(淸溪川·開川) 일대가 위항이었으며, 좁은 집들이 모여 있었던 누상동(樓上洞)이나 누하동(樓下洞)을 중심으로 한 인왕산(仁王山) 일대도 위항이었다. 청계천 일대에는 역관이나 의원으로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재산이 넉넉한 위항인들이 살았으며, 인왕산 언저리에는 위항인 가운데 주로 서리나 아전들이 많이 살았다.

한시(漢詩)는 사대부 양반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선 중기부터 역관이나 의원같이 한문에 능통한 위항인들이 한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위항시인이

라고 한다. 이 논문에선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삼청동(三清洞)에서 인왕산을 거쳐 청계천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안의 명승지 인왕산

서울의 물길은 백악산(白岳山)과 인왕산(仁王山) 사이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흐르는데, 도성 한가운대를 흐르는 이 물을 개천(開川)이라고 하였다. 백악의 남쪽, 인왕산의 동쪽 명당에 궁궐을 지었다.

조선시대 한양의 주민들은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종로를 경계로 하여 살았다. 왕족과 양반 관료들은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을 연결하는 직선 이북의 지역, 지금의 울곡로(栗谷路) 양쪽 일대에 모여 살았으니, 계동(桂洞)·가회동(嘉會洞)·원서동(苑西洞)·안국동(安國洞) 등의 북촌이 그들의 거주지역이었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의 주산은 백악(白岳·北岳)이다. 백악의 좌청룡인 동쪽의 낙산(駱山·酪山)은 밋밋하고 얇은 지세인데, 우백호인 서쪽의 인왕산은 높고 도 우람하다. 인왕산의 주봉은 둥글넓적하면서도 남산같이 부드럽거나 단조롭지 않으며, 북악처럼 빼어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남성적이다. 그래서 한양에 도읍을 정할 무렵에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는 의논도 있었다. 차천로(車天輅 1556-1615)는 『오산설림(五山說林)』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무학(無學)이 점을 쳐서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정하고,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백악과 남산을 좌청룡과 우백호로 삼자고 하였다. 그러나 정도전(鄭道傳)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옛날부터 제왕이 모두 남쪽을 향하고 다스렸지,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무학이 “지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200년 뒤에 가서 내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설이 민중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온 듯하다. 실제로 임진왜란을 겪고 나자 인왕산에 왕기가 있다는 소문이 다시 퍼져, 광해군(光海君) 시대에 인왕산 기슭에다 경희궁(慶熙宮)을 세웠으며, 지수궁(慈壽宮)이나 인경궁(仁慶宮)도 세웠

다. 실제로 이 부근에서 살았던 능양군(綾陽君)이 반정(反正)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몰고 등극하여 인조(仁祖)가 되었으니, 인왕산 왕기설이 입증된 셈이다.

인왕산에는 왕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치도 좋았다. 서울의 명승지로는 반드시 인왕산이 꼽혔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국도팔영(國都八詠)」에는 필운대(彌雲臺) · 청풍계(淸風溪) · 반송지(盤松池) · 세검정(洗劍亭)을 포함했다. 성현(成俔 1439-1504)이 『용재총화(慵齋叢話)』 제1권에서,

한성 도성 안에 경치 좋은 곳이 적은데, 그중 놀만한 곳으로는 삼청동(三清洞)이 으뜸이고, 인왕동이 그 다음이며, 쌍계동(雙溪洞) · 백운동(白雲洞) · 청학동(靑鶴洞)이 또 그 다음이다. (줄임) 인왕동은 인왕산 아래인데, 깊은 골짜기가 비스듬히 길게 뻗어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서울의 5대 명승지 가운데 인왕동과 백운동이 모두 인왕산에 있었다.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도심 가까이 있으니, 성안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명승지였다.

서울 시내에서 인왕산을 보면 앞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인왕산의 모습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이 부분에만 집과 관청이 들어섰고, 사람이 살았으며, 역사가 이뤄졌다. 골짜기를 따라 여러 개의 마을이 생겼는데, 강희언(姜熙彦 1710-1764)의 그림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그림1) 그 뒤 몇 개씩 합해져서 지금의 법정동이 되었으며, 몇 개의 법정동이 합해져서 다시 행정동이 되었다. 사직동(社稷洞)부터 체부동(體府洞)을 거쳐 필운동(彌雲洞) · 누상동 · 누하동 · 옥인동(玉仁洞) · 효자동(孝子洞) · 신교동(新橋洞) · 창성동(昌成洞) · 통인동(通仁洞) · 통의동(通義洞) · 청운동(靑雲洞) · 부암동(付巖洞)까지가 경복궁에서 볼 수 있는 인왕산의 동네들이다.

인왕산에는 약수터도 많아서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광복 이후에도 서울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던 곳이었는데, 1968년 1월 21일 청와대(靑瓦臺) 습격사건 이후 군부대가 주둔하며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통제되었었다. 그러다가 입산통제 25년만인 1993년 2월 25일부터 출입이 자유로워져, 서울시민들에게 등산로로 다시 개방되었다.

338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등산로가 14곳이나 되며, 서울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II. 인왕산의 네 구역

인왕산은 경치가 좋은 명승지이면서도, 경복궁에서 가까운 주택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런데 명승지라는 이름에 비해, 이름난 정자들은 많지 않았다. 임금이 사는 경복궁이 너무 가까운데다, 높은 곳에서 궁궐을 내려다보며 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왕산에 지어진 집들은 시대마다 그 구역이 달랐다. 경복궁이 정궁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경복궁 옆 동네에 관청만 있었고, 주택들은 많지 않았다. 안평대군의 별장인 무계정사가 인왕산에 있었지만,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지 않는 옆자락이었다. 그의 살림집은 수성동(水聲洞) 기린교(麒麟橋) 부근, 지금의 누하동에 따로 있었다.¹⁾

장동 김씨들이 모여 살았던 청풍계나 위항시인들이 모여 활동했던 옥류동(玉流洞)은 조선후기에 와서야 활기를 띠었다. 임진왜란 중에 경복궁이 불타버려 오랫동안 폐허가 되자,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야전들이 관아와 거리가 가까운 인왕산 중턱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인왕산은 높이에 따라 고관들의 호화주택과 위항인들의 초가집들이 섞이게 되었다. 6.25 전까지만 해도 누상동이 나 누하동, 필운동 일대에는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다.

인왕산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누고, 어느 시대에 어떤 시인들이 이 구역에 모여서 활동했는지 간단히 밝혀보기로 한다.

1. 안평대군과 무계정사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의 무계정사(武溪精舍)는 창의문(彰義門) 밖

1) 수성동(水聲洞)은 인왕산 기슭에 있는데,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다. 물 맑고 바위도 좋은 경치가 있어서, 더울 때 소풍하기에 가장 좋다. 이 동네는 옛날 비해당(匪懈堂) 안평대군이 살던 집터라고 한다.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이름을 기린교(麒麟橋)라고 한다. 유본해,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명승」조

에 있었다. 지금의 부암동 329-4에 그 터가 남아 있다. 안평대군이 꿈에 도원(桃源)을 보고 안견(安堅)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안평대군의 시를 비롯해서 김종서(金宗瑞)·신숙주(申叔舟)·이개(李埜)·성삼문(成三問)·정인지(鄭麟趾) 등의 20여명이 친필로 시문(詩文)을 써준 것으로도 유명한데, 안평대군이 꿈속의 경치와 비슷하다고 하여 별장을 지은 곳이 바로 무계정사 터이다.

안평대군은 시와 문장을 즐겨 그의 별장에는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고, 무사들도 모여들어서 함께 활을 쏘았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김종서와 함께 계유정난으로 죽고 집현전의 학사들도 단종(端宗) 복위운동의 실패로 죽게 되자, 무계정사의 모임은 곧 흩어졌다. 지금 그 터에는 무계동(武溪洞)이라는 글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으며(그림2), 무계정사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이 일대는 경치가 좋아서 오랫동안 권력자들이 별장터로 차지했는데, 조선후기 철종시대에는 영의정 김흥근(金興根)이 삼계동(三溪洞)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그의 별장을 탐내어 빼앗은 이야기는 『매천야록』에도 자세히 실려 있다. 대원군은 이 집 이름을 석과정(石坡亭)이라고 고쳤는데, 부암동 316-1에 삼계동(三溪洞)이라는 각자와 함께 건물 7채가 남아 있으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2. 김상용과 청풍계

청풍계(淸風溪)는 지금의 청운동 52번지 일대인데, 백운동 골짜기에서 청운국민학교 뒤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려 경치가 좋았다. 이곳에 장동 김씨의 터를 잡은 사람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다.

그는 35세까지 정주목사·상주목사·안변부사 등 외직으로 돌아다니다가, 36세 되던 1608년 7월에 첨지중추부사가 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8월에 한성부 우윤,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며, 다시 9월에 도승지가 되었다. 선원의 「연보」에 보면 이 해에 청풍계에 별장을 지었는데, 그 기사에 아래와 같은 주가 덧붙여 있다.

(청풍계는) 일명 청풍계(靑楓溪)라고도 하는데, 경성 서북쪽 필운산 아래 있다. 수석(水石)이 맑고도 뛰어나다. 암(菴)을 와유암(臥遊菴)이라 하고, 각(閣)을 청풍각(靑風閣)이라 하였으며, 태고정(太古亭)도 지었다. 지(池)·대(臺)·암(巖)·학(壑)에 모두 이름을 지었으며, 12월령시(月令詩)도 지었다.

선원이 청풍계에 지은 이 집은 그 뒤 장동 김씨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장안의 사대부 시인들이 이 집에 자주 모여 시회를 열었다. 그가 1611년 태고정에서 지은 시를 보면, 이곳에서 얼마나 신선 취미를 즐겼는지 알 수 있다.

나무들이 뻗뻗해 짙은 그늘 고요하니
빈 정자에 작은 대자리가 차갑구나.
샘물이 쿵쿵 섬돌 아래로 흐르고
연꽃이 배개 머리로 향기를 보내네.
읽기도 지쳐 시집을 내려놓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며 잠나라로 들어가네.
산속에 한가로운 취미가 있어
지금이야 가장 좋은 걸 문득 느끼겠네. -「태고정즉사(太古亭卽事)」

선원의 아우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육상궁(毓祥宮) 서쪽 담장과 맞닿은 궁정동(宮井洞) 2번지 부근에서 살았다. 인왕산 옆자락에 살던 선원과 청음 형제가 뒷날 정권의 중심에 진입하면서 집도 인왕산으로 옮겨와, 청풍계와 옥류동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보다 몇 세대 후배인 겸재(謙齋) 정선(鄭勳 1676-1759)은 유란동(幽蘭洞) 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경북중고등학교와 청운중고등학교가 있는 청운동 89번지 일대의 북악산 서쪽 아랫동네이다. 정선의 외할아버지인 박자진(朴自振 1625-1694)은 건너편 청풍계에 큰 집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선이 그의 집을 그려준 「풍계유택(楓溪遺宅)」(그림3)을 보아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청풍계와 백악산 밑자락은 이어지는데, 이 일대에서 울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의 친구들인 우계(牛溪) 성혼(成渾), 구봉(九峰) 송익필(宋翼弼), 백록(白麓) 신응시(辛應時), 송강(松江) 정철(鄭澈) 등이 1530년대에 태어났으며,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 청음 김상헌, 선원 김상용 등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다. 김수항(金壽恒)과 김수증(金壽增) 형제가 그 다음 세대이며, 김수항의 여섯 아들인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형제들이 그 다음 세대로 태어났다. 그뒤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이 육상궁 동쪽 대은암동(大隱巖洞)에서 태어났는데, 농암 6형제는 겸재와 사천의 스승이 된다. 청운동 일대가 율곡학과와 진경산수화풍의 요람이었다.²⁾

이 동네는 창의문이 있어서 창의동이라 불렀다가, 자하동(紫霞洞)을 거쳐 장동(壯洞)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일대에 살았던 김상헌과 김상용의 후손들을 흔히 장동 김씨라고도 불렀다. 장동은 경치가 아름다워 흔히 장동팔경(壯洞八景)을 꼽았다. 이 동네에 살며 이들과 친하게 지냈던 정선이 장동팔경을 두 차례나 그렸는데,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된 장동팔경에는 자하동·청송당(聽松堂)·대은암(大隱巖)·독락정(獨樂亭)·취미대(翠微臺)·청풍계·수성동·필운대를 그렸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동팔경에는 창의문·백운동·청풍계·청회각·청송당·대은암·독락정·취미대를 그렸다. 겸재는 이밖에도 여러 차례 청풍계의 모습을 그렸는데,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 가장 사실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그림4)

태고정 터는 장동 김씨네 종손들이 대를 이어 살다가, 1940년대 초에 미쓰이에 넘어가 사택지로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청운국민학교 뒷길 중간쯤, 청운동 52-58 철책 안에 “백세청풍(百世淸風)”이라 새긴 바위만 잡초에 가려 있다.(그림5) “대명일월(大明日月)”의 녁 자는 빌라를 지으면서 축대 밑에 깔려버렸다.

2) 최완수, 「겸재 정선과 진경산수화풍」(『진경시대』 권2, 돌베개, 1998), 52-3쪽.

3. 김수항과 천수경의 송석원 일대

1) 김수항의 청취각과 송석원

청음 김상헌이 옥류동 일대에 드나들며 약수터를 찾아다녔는데, 그의 손자인 문곡 김수항 때에 와서 옥계(玉溪) 옆에다 집을 지었고, 1686년에 청취각(淸曄閣)을 지었다. 인왕산 북쪽 자락에서 남쪽 중턱으로 진출한 것이다. 이때부터 장동 김씨네가 200년 가까이 옥류동을 차지하고 대대로 자손들이 청취각에 들어와 살았는데, 지금의 옥인동 47번지 일대이다. 이들이 200년 동안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잡았으므로, 수많은 사대부 시인들이 청취각에 모여들어 시를 지었다. 김수항의 후손인 김학진(金鶴鎭)은 청취각을 송석원(松石園)이라고도 기록했는데, 처음부터 송석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뒷날 위항시인 천수경(千壽慶 1758-1818)의 송석원 구역까지 합쳐지면서, 큰 바위에 새겨져 있던 “송석원(松石園)”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것이다. 경복궁에 가까우면서도 경치가 좋았던 이 자리는 그뒤에도 왕실의 외척인 민씨와 윤씨 집안에 대대로 넘겨졌다.

2) 이춘제의 삼승정

도승지 이춘제(李春 1692-1761)도 인왕산 골짜기에 살았는데, 그의 집은 세심대(洗心臺)와 옥류천 사이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 후원에다 초가 정자를 짓고 49세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이병연이 시를 짓고, 병조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서원소정기(西園小亭記)」를 지었으며, 겸재가 「서원소정도(西園小亭圖)」를 그렸다.(그림 6) 조현명은 「서원소정기」에서 “(초가 정자가 있는 후원의) 경치와 (이병연의) 시와 (겸재의) 그림이 빼어나다”는 뜻으로, 이 정자에 삼승정(三勝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그림에서 정자 오른쪽에는 “세심대(洗心臺)”, 왼쪽에는 “옥류동(玉流洞)”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삼승정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그림은 인왕산을 배경으로 그린 것인데, 겸재는 삼승정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그림(그림7)도 남겨 놓아서 인왕산 아랫마을의 모습도 보여 주었다. 이 「삼승조망도(三勝眺望圖)」는 삼승정 주인 이춘제가 멀리 장안을 바라보는 그림인데, 인왕산 아랫마을, 폐허가 된 경복궁, 남산과 사직단(社稷壇)까지 그려져 있다.

1739년 6월 어느날 소나기가 그친 뒤에, 그의 집 후원인 서원(西園)에서 송익보·서종벽·심성진·조현명·이병연·정선과 주인 이춘제 등 7명이 모여서 시를 짓고 놀았다. 이날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이병연이 시를 짓고, 이춘제는 「서원아회기(西園雅會記)」를 지었으며, 겸재는 이들이 옥류동에서 세심대를 향해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그림8) 그림 아래쪽 굵은 먹선의 흰 담장은 이춘제의 집터를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 바위가 세심대이다. 그림에서 일곱 선비가 걸어가는 능선은 현재도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주요 등산로이다.³⁾ 이춘제의 집이 김수항의 청취각보다 윗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옥인동 일대에는 위항시인들과 당대 최고의 권력층이 어울려 살았던 셈인데, 그 옆에 진경산수화풍의 대가였던 겸재 정선도 살고 있었다. 정선이 외할아버지 박자진의 증손자인 박종상(朴宗祥 1680-1745)으로부터 집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인왕동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인곡정사(仁谷精舍)라고 이름붙였다. 최완수의 고증에 의하면 지금의 옥인동 20번지 부근이라고 하는데,⁴⁾ 정선이 1746년에 그림을 그려(그림9)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솔숲 아래 소슬대문까지 갖춘, ㄷ자 모양의 전형적인 한양 사대부 주택이다.

3) 천수경의 송석원

천수경의 송석원 시대는 이들보다 몇 세대 늦게 시작되었다. 위항시인 천수경의 호는 원래 적여재(積餘齋)였는데, 1790년대 초에 옥류동으로 이사하여 송석원(松石園)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위항시단에 송석원시대가 시작되었다. 천수경의 송석원은 장동 김씨네 청취각 바로 윗쪽에 있었다. 천수경이 1818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년간 송석원은 위항시인들의 중심적인 모임터였다. 그러나 천수경이 세상을 떠나자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결국 장동 김씨네가 이 땅을 사들여 확장하였다. “송석원(松石園)”이라고 새겨진 큰 바위가 청취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송석원을 장동 김씨네 별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 이태호 『그림으로 본 옛서울』(서울학연구소, 1995), 136쪽.

4)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법우사, 1993).

4. 필운대와 육각현

1537년 3월에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이 한양에 들어오자, 중종(中宗)이 그를 경복궁 경회루(慶會樓)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중종은 그 자리에서 북쪽에 솟은 백악산과 서쪽에 솟은 인왕산을 가리키면서, 이름을 새로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손님에게 산이나 건물의 이름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최고의 대접이었기 때문이다.

한양 주산의 이름을 새로 짓게 된 공용경은 도성을 북쪽에서 떠받치고 있는 백악산은 “공극산(拱極山)”이라 이름지었으며, 경복궁 오른쪽에 있는 인왕산은 “필운산(弼雲山)”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는 필운산이라고 이름지은 까닭을 “우필운룡(右弼雲龍)”이라고 설명했는데, 운룡(雲龍)은 임금의 상징이다. 임금을 오른쪽에서 돕고 보살핀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용경이 지은 이름들은 널리 쓰이지 않았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 살았던 집터에 “필운대”라는 이름으로 전할 뿐이다.

순조(純祖) 때의 실학자인 유본예(柳本藝)는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필운대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필운대는) 성안 인왕산 밑에 있다. 필운대 밑에 있는 도원수 권울(權慄)의 집이 오성부원군 이항복의 처가집이므로, 그는 그곳에 살면서 스스로 별호를 필운(弼雲)이라고 하였다. 지금 바위벽에 새겨져 있는 “필운대(弼雲臺)” 석 자가 바로 오성부원군의 글씨라고 한다. 필운대 옆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성안 사람들이 봄날 꽃구경하는 곳으로는 먼저 여기를 손꼽는다. 시중 사람들이 술병을 차고 와서 시를 짓느라고 날마다 모여든다. 흔히 여기서 짓는 시를 “필운대 풍월”이라고 한다. 필운대 옆에는 육각현(六角峴)이 있으니, 이곳도 역시 인왕산 기슭이다. 필운대와 함께 유명하다.⁵⁾

필운동 9번지에는 이항복의 글씨라는 “필운대(弼雲臺)” 석 자가 아직도 남아 있

5) 유본예, 같은 책 권2, 「명승」조

다.(그림10) 지금도 필운대 바위 앞에 서면 경복궁과 백악산을 비롯한 서울의 모든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필운대 앞에는 배화여고와 배화여대(培花女大)가 세워져 있으며, 1873년(고종 10년)에 이항복의 9대손인 이유원(李裕元)이 찾아와 조상을 생각하며 지었던 한시가 새겨져 있다.

조상님 예전 사시던 곳에 후손이 찾아드니
푸른 소나무와 바위벽에 흰구름만 깊구나.
백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유풍(遺風)은 가시지 않아
부로(父老)들의 차림새는 예나 지금이나 같아라.

그 옆 바위에는 가객 박효관(朴孝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계유감동(癸酉監董)”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옆에 박효관을 비롯한 일행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서, 이유원의 일행과 함께 이곳에 와서 풍류를 즐기며 시를 바위에 새기는 일을 돌봐주었던 듯하다. 위항의 가객이었던 박효관은 늘 이곳에서 노래 부르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정선의 그림 「육강현(六岡峴)」(그림11)에는 “농은당에서 육강현을 바라본다[自農隱堂望六岡峴]”라는 조영석의 글이 덧붙여 있는데, 농은당은 아마도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집인 듯하다. 육각현을 육강현이라고도 부른 듯한데, 농은당 위쪽 큰 바위는 필운대이다. 『한경지략』에

요새 북산 아래 육각현에 어떤 집이 있는데, 담장이 매우 길고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람들이 “만리장성집”이라고 부른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육각현에 있는 농은당이 바로 담장도 길고 꽃나무도 많은 집이다. 아마도 김창협(金昌協)의 집을 뒷날 만리장성집이라고 부른 듯하다. 육각현은 필운동에서 누상동으로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고갯길인데, 지금은 배화여고가 들어서 있다.

배화여고는 1898년 미국 남감리회(南監理會)의 첫 여자선교사이던 캠벨여사에 의해 내자동(內資洞)에서 배화학당으로 출발해, 1915년 누하동으로 옮겼다가,

1925년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면서 필운동 고개까지 확장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다시 필운동 1번지에서 10번지에 이르는 지역을 모두 사들여, 민가를 헐고 교사를 증축했다. 필운동에서 누상동으로 넘어가는 육각현 고갯길도 이때 막혀버렸으며, 만리장성집 옛터에 폐가처럼 남아 있던 널찍한 기와집도 이때 헐리고 과학관 건물이 들어섰다.⁶⁾ 지금은 과학관 뒤에 “필운대(弼雲臺)”라는 글자만 남아 있다.

Ⅲ. 인왕산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조선후기 위항시인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였다. 옥계사(玉溪社) 동인들처럼 1년의 모임을 미리 계획하고, 그 모임터와 날짜까지 정해놓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동인들의 집에서 모이고, 특별한 경우만 장소를 따로 정하고 연락해서 모였다. 17세기 후반의 낙사(洛社)부터 19세기 후반의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위항시사들이 인왕산 언저리에서 모였는데, 그 변천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인왕산으로 오기까지

위항시인들은 임진왜란 직전부터 모임을 이루기 시작했다. 첫번째 위항시인들의 모임은 풍월향도(風月香徒)라고 불렸다. 한문으로 읊는 풍월은 원래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민요나 타령이 제 격인 상두꾼들이 격에 어울리지 않게 풍월을 읊고 다녔으므로, 사대부 양반들이 그들을 풍월향도라고 불렀던 것이다.

상가집에 불러 다니는 노예 유희경(劉希慶 1545-1636)과 전함사의 노예 백대붕(白大鵬)을 중심으로 노예들이 모여서 풍월을 읊다가, 백대붕이 상주 싸움에서 죽고 유희경이 의병활동을 하면서 신분이 양반으로 상승된 뒤에, 풍월향도 모임은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경치가 아름다웠던 유희경의 집 침류대(枕流臺)는 경복궁 북쪽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사대부 문인들의 모임터가 되었다.

6) 이승우, 「평민시인들의 고향 인왕산 기슭」(『역사산책』, 범우사, 1991년 9월호), 19-20쪽.

유희경의 제자 최기남(崔奇男 1586-1669이후)은 선조의 부마인 신익성(申翊聖) 집안의 궁노(宮奴)였지만, 사대부들 사이에서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며 인정받고, 삼청동의 자기 집에서 서당을 열어 위항의 자제들을 가르쳤다. “산이 맑고, 물이 맑고, 사람이 맑다”고 해서 삼청동(三清洞)이라고 불린 이 동네는 궁에서 가까우면 서도 경치가 좋았으므로, 경야전이나 의원·역관으로 사역하던 위항시인들이 모이기에 알맞았다. 이들 여섯 위항시인들이 지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를 모은 책이 바로 첫번째 위항시선집인 『육가잡영(六歌雜詠)』이다.

2. 낙사(洛社)

최기남의 제자 가운데 임준원(林俊元)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글공부를 중도에 포기하고, 내수사(內需司)의 아전으로 들어가 많은 돈을 벌었다. 수천냥이 모아지자, “이만하면 넉넉하다”고 탄식하면서 아전 일을 내어놓고, 집에 들어앉아 시를 지었다. 후원자인 임준원을 중심으로 최기남의 제자들과 최기남의 아들인 최승태(崔承太)·최승주(崔承胄)·최승윤(崔承潤) 및 손자 최세연(崔世衍)까지 함께 어울려 시를 지었다. 이들의 모임을 낙사(洛社)라고 했는데, 이들은 삼청동에서도 모였지만, 인왕산 언저리에서도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집이 백련봉과 인왕산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임의 후원자였던 임준원의 집이 뒷날 송석원(松石園)으로 유명해진 천수경의 집 부근이었는데, 늘 술과 안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의 인왕산 집에서 시사가 자주 모였다.

이들이 주로 모였던 곳은 서울의 북부인 백련봉(白蓮峰)·필운대·옥류동 등지였다. 정내교(鄭來僑)는 임준원의 전기를 지으면서, 임준원의 집안이 대대로 살았던 북부의 모습과 그곳에서 모였던 낙사(洛社)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백련봉 서쪽에서 필운대까지가 북부이다. 대체로 가난하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나 의협스런 무리들이 자주 있어, 의기로 사귀어 노닐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였다. 흔쾌히 허락하고 남의 어려움을 잘 도왔으며, 근심 걱정을 함께 하였다. 시인 문장가들이 계절을 따라 노닐며, 자연 속의 즐거움을 맘껏 누렸다. 마음이 내키면 시를 읊

었는데, 많이 짓는 것을 자랑하고 곱게 짓기를 다투었다. 풍속이 그러했던 것이다.⁷⁾

지금의 사직동·누상동·옥인동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 주로 가난한 위항시인들이 모여 살았으며,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시사가 모였다. 이들의 스승인 최기남이 죽었을 때에 스승도 제자도 모두 가난해서 관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던 것을 보면, 벼슬을 못한데다 일정한 직업까지 없었던 그들의 살림은 무척이나 어려웠던 것 같다. 백련봉 서쪽에서 필운대까지의 북부를 흔히 “우대”라고도 했는데, 예전부터 경아전들이 주로 살았다. 우대에서 태어나 자랐던 이들의 거주지는 막연하게 기록되었는데,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홍세태는) 늘그막에 백련봉 아래에 집을 짓고 유하정(柳下亭)이라 이름지었다. 좌우엔 등잔대와 책이 있어 그 가운데서 시를 읊었지만, 살림살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썰렁하였다.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렸지만, 그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⁸⁾

(김만취는) 늘그막에 백련봉 아래에다 집을 짓고, 스스로 호를 남곡거사(嵐谷居士)라고 하였다. 손수 채마밭에 모종내고 버드나무도 심었다. 날마다 그 아래에서 거닐며 스스로 즐겼다. 술병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고 함께 마셨다. 한껏 취해 즐거워지면 술솥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노래 불렀다.⁹⁾

임준원이 술과 안주를 마련한 낙사에는 이름난 위항시인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의 모임”이란 뜻의 낙사(洛社)는 1650년대부터 모이기 시작해 임준원과 유찬홍(庾纘弘)이 세상을 떠나는 1697년 이후까지 모였는데, 1680년(숙종 6년) 쯤에 절정을 이뤘다.

7) 『완암집(浣巖集)』 권4 「임준원전(林俊元傳)」

8) 장내교, 같은 책, 「창랑홍공묘지명(滄浪洪公墓地銘)」

9) 장내교, 같은 책, 「김택보만취묘지명(金澤甫萬墓地銘)」

3. 서사(西社) · 백사(白社) · 구로회(九老會)

서사와 백사는 같은 시사인데, 이 모임이 나중에 구로회로 바뀌었다. 위항시사들은 대개 한양성 서쪽 인왕산에서 많이 모였으므로, 서사(西社)라는 이름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위항시인들의 시에 나타났었다. 서사(西社)라는 명칭은 모임터의 위치를 밝힌 이름이고, 백사(白社)라는 이름은 모인 시인들의 신분을 밝힌 명칭이며, 구로회(九老會)라는 이름은 늙은 뒤에도 함께 모인 시인이 아홉 사람이나 되었다는 숫자를 밝힌 명칭이다.

명필 엄한봉(嚴漢朋)의 아들인 엄계흥(嚴啓興)의 집에서 한동안 서사가 모였다. 누상동 166-87에 있던 백호정(白虎亭) 약수터 바위의 글자를 엄한봉이 쓴 것을 보아, 그의 집이 이 부근에 있었던 듯하다. 최윤창(崔潤昌)의 시 「여엄숙일마인백유서원(與嚴叔一馬仁伯遊西園)」에 “이날이 바로 답청일(踏青日)인데, 필운대 아래에 시를 짓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주가 있는 것을 보아서, 유본예가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말한 “필운대 풍월”의 장소가 바로 서원(西園)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늙어가면서 서사 주인 엄계흥을 비롯하여 김순간(金順侃) · 이효원(李孝源) 등이 먼저 죽자, 모임의 장소가 자연히 김성달(金成達)의 함취원(涵翠園)으로 바뀌면서 구로회로 발전하였다. 마성린(馬聖麟 1727-1798 이후)과 최윤창 · 김순간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 시사는 주로 인왕산에서 모였다. 승문원 서리였던 마성린은 대대로 호조와 내수사의 아전을 해오던 집안에 태어나, 넉넉한 살림으로 위항시인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1727년 3월 28일 서울 황화방(皇華坊) 대정동(大貞洞) 외가에서 태어나, 외가와 두석동(豆錫洞) 본가, 그리고 다방동(多芳洞) 외종가를 다니면서 자랐다.¹⁰⁾ 11세에는 동네 친구인 김순간 · 최도근 등과 함께 누각동(樓閣洞) 김침지 댁에서 글을 배웠다. 인왕산에서 함께 자란 이 친구들은 평생 함께 시 짓는 친구들이 되었다.

10) 그의 문집인 『안화당사집(安和堂私集)』 뒷부분에는 그 자신이 엮은 연보 「평생우락총록(平生憂樂總錄)」이 실려 있어서, 위항시인들의 생장지와 교육관계 및 모임터를 보기 드물게 확인해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소개한다.

12세에는 두석동 고동지(高同知) 댁에서 글을 읽었다. 이즈음 문덕겸(文德謙)·최윤벽(崔潤璧)·김순간·김봉현 등의 위항 자제들과 더불어 글을 지으며 놀았는데, 이들이 나중에 백사와 구로회의 동인이 되었다.

14세에는 서학동(西學洞)으로 이사갔으며, 15세에는 침지 한성만의 여섯째 딸과 결혼한 뒤에 육조동(六曹洞) 어구에 있는 김봉현의 집에서 김세욱과 더불어 글을 읽었다. 16세에는 박창문(朴昌文)·유세통(庾世通) 형제와 더불어 유괴정사(柳槐精舍)에서 글씨 공부를 했다. 유괴정사는 필운대 아래 적취대(積翠臺) 동쪽에 있는데, 침지 박영(朴垔)이 살던 곳이다. 이곳은 당시에 위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던 곳인데, 마성린은 어린 나이에 선배들과 함께 어울리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매번 꽃이 피고 피플새가 우는 날이거나 국화가 피는 중앙절에 일대의 시인·목객·금우(琴友)·가옹(歌翁)이 이곳(유괴정사)에 모여 거문고를 뜯고 피리를 불거나, 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그중에서도 여러 노장들, 즉 동지 엄한봉·사알 나석중(羅石重)·선생 임성원(林聲遠)·별장 이성봉(李聖鳳)·동지 문기주(文基周) 형제·동지 송규징(宋奎徵) 형제·침정 김성진(金聲振)·동지 홍우택(洪禹澤)·침지 김우규(金友奎)·주부 문한규(文漢奎)·침지 이덕만(李德萬)·동지 고시걸(高時傑)·홍우필(洪禹弼)·오만진(吳萬珍)·김효갑(金孝甲) 등이 매번 시회(詩會) 때마다 나에게 시초(詩草)를 쓰게 하였다.

18세에는 필운동으로 이사했으며, 겸재 정선의 문하에 드나들며 산수화를 배웠다. 19세에는 한의학 서적들을 보면서 몸조리를 하는 틈틈이, 필운동 어구에 있는 처가집 노조현(老棗軒)에서 글과 글씨로 나날을 보냈다. 이때 김순간·최윤창·유세통 등 여러 친구들이 날마다 이 집에 모여서 시를 지으며 노닐었는데, 이 모임이 7,8년 계속되었다.

24세에는 봄과 여름 동안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인왕곡성(寅王曲城)·필운대·적취대(積翠臺) 등을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날마다 사온동(司醞洞) 김흥기의 집에 모여서 글을 읽고 글씨를 쓰며 반년을 노닐었다. 28세에는 전동

(甌洞)으로 이사하였다. 날마다 동네 친구인 지영부·서증명·이명서·홍자유의 함께 몇 년 동안 노닐었다.

43세에 필운대 아래 북동으로 이사하였다. 집안에 정원이 있고, 정원 아랫쪽에는 초가 삼간이 있었다. 안화당(安和堂)이라고 이름지은 이 초당에는 시인·가객·화사(畫士)·서동(書童)들이 날마다 모여들었다.

48세에는 초당에서 남곡(南谷)으로 집을 옮겼다. 봄 여름에 동네 노인들인 동지 윤익주·동지 유득랑·침지 김부필·동지 김식·침지 서상진 등과 더불어 청풍계·도화동·무계동에서 노닐었다. 49세에는 사천군수 권군옥(權君玉)·찰방 김후신(金厚臣)과 옥류동이나 만향각(晩香閣)에서 모였다. 만향각은 누각동에 있는 직장 권군겸(權君謙)의 집이다.

51세에는 별제 김홍도(金弘道)·만호 신한평(申漢枰)·주부 이인문(李寅文) 등의 이름난 위화화가들과 중부동 강희언(姜熙彦)의 집에서 모여 사귀었다. 그가 그림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봄부터 겨울까지 찾아다니며 그림 구경을 하거나, 그들이 그린 그림에다 화제(畫題)를 써 주었다.

52세 되는 1778년 9월 14일에는 이효원·최윤창과 더불어 김순간의 집인 시한재(是閑齋)에 모여 국화꽃을 구경하며 시를 지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객(琴客) 이휘선(李輝先)·가객 김시경(金時卿)·화원 윤도행이 약속도 없이 찾아왔기에, 밤새도록 촛불을 밝혀놓고 시와 노래, 글씨와 그림을 즐겼다. 이날의 모임을 기록한 시첩이 『청유첩(淸遊帖)』인데, 마성린은 그 모임을 이렇게 그렸다.

주인옹(김순간)은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는 글씨를 걸고 중당에 앉았는데, 맛있는 안주와 술을 차리고 손님들에게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마루에 올라 안부 인사를 마친 뒤에 술잔을 잡고 좌우를 살펴보니, 대나무 침상 부들자리 위에 두 사람이 앉아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돌을 놓는 소리가 푹푹 들렸다. 왼쪽에 용모가 단정한 사람은 사형(詞兄) 이효원이고, 오른쪽에 점잖게 차려입은 사람은 원외(員外) 최윤창이었다. 술동이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떠도는 분위기로 걱정스럽게 앉아서 춤추는 듯한 손으로 거문고를 탔다. 거문고 소리가 고요하고도 맑았는데, 은연중에 높은 하늘 신선들의 쾌육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이름난 금객 이휘선이었다. 그 곁에 한 소년이 또한 거문고를 껴안고 마주앉아, 그 곡조와 어울리게 함께 연주하였

다. 소리소리 가락가락이 손 가는대로 서로 어울렸다.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가락이 마치 들로 쪼갠 대쪽이 하나로 합치듯 하였으니, 묘한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랴. 이 사람이 바로 전 사알(司謫) 지대원이었다.

두 거문고 사이에 한 사람이 으쓱하게 앉아서 신나게 무릎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 소리가 두 거문고 소리와 어울려서 그 소리가 구름 끝까지 꿰뚫었으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손발이 춤추게 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누구던가? 당시에 노래를 가장 잘 부르던 김시경이었다. 창가에서는 한 사람이 호탕하고 노숙한 자세로 술에 몹시 취하여 상에 기대어 앉았는데, 거문고 가락과 가곡을 평론하던 이 사람은 전회(典會) 유천수(劉天受)였다. 책상 위에 붓과 벼루를 마련하고 그 곁에다 한 폭의 커다란 종이를 펼친 채, 하얀 얼굴의 소년이 배우에 가죽띠 차림으로 붓을 쥐었다. 이 자리의 모습을 그리는 이 사람은 (화가) 윤숙관(尹叔貫)이었다.¹¹⁾

1791년에는 옥류동에 사는 천수경이 시인 칠팔십명을 불러다 왕희지의 난정고사(蘭亭古事)를 본받아 풍류모임을 열었다. 그도 또한 부름을 받고 나아가 시축에다가 시를 써 주었다. 이때부터 마성린·최윤창·김순간 등의 서사(백사) 동인들도 자주 송석원(松石園)의 옥계사(玉溪社)를 찾아가고, 이들의 후배였던 천수경도 이들을 찾아와, 위항시단의 선배와 후배 시인들이 교류하게 되었다. 이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날마다 김성달의 함취원(涵翠園)에서 만나며 시와 술로 노닐었다. 함취원도 옥류천 부근, 송석원 가까이 있었다.

68세가 되는 1792년에는 봄과 여름에 걸쳐서 최윤창·김성달·엄계응과 더불어 옥류동·서벽정(棲碧亭)·함취원 등 여러 곳에서 자주 시와 술을 즐겼다. 그러다가 이해 9월에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였다. 그는 「평생우락총록」에서 이 시사의 결성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9월에 최윤창(비변사 서리)·황덕순(黃德諄)·백경현(白景炫 승정원 서리)·김헌·엄계응(승정원 서리)·이경오(李景五)·조지원(趙志源)과 더불어 김성달의 집인 함취원(涵翠園)에서 모여 구로시계(九老詩稷)를 결성하였다. 소년 천수경

11) 마성린 『안화당사집』 상권 「시한계정유설문(是閑齋淸遊說文)」

도 또한 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좋은 날이나 아름다운 절에는 서로 모여 시를 지으며 글과 술의 모임[文酒之會]을 만들었으니, 늘그막에 즐거운 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며 함께 글을 배웠던 이효원과 김순간이 이미 죽은 뒤여서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이 아홉 시인의 위항시사는 그뒤에도 오래 계속되었다. 구로회 동인들이 지은 시는 주로 『풍요삼선(風謠三選)』 권1에 실려 있다. 첫 모임에서 지었던 시와 그림을 모아 각기 시첩을 엮었는데, 1794년에도 엄계응이 스스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덧붙여서 약오진장(藥塢珍藏) 『구로첩(九老帖)』을 엮었다. 이들은 후배 위항시인들이 모이던 옥류동 송석원까지 진출하여 시를 짓다가, 소낙비로 길이 막혀서 밤새 촛불을 밝히고 놀기도 했다.

마성린이 지은 「평생우락총록」에는 71세까지의 행적만 밝혀져 있어서 그뒤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위의 기록들만 보더라도 인왕산 언저리에서 태어나 그 부근에서 어울리며 함께 늙어온 위항시인들의 모임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4. 옥계사(玉溪社)와 송석원(松石園)

옥계사의 선배는 박영석(朴永錫 1734-1801)인데, 인왕산 누각골에서 글방 선생을 하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뒤 이 일대에 위항시인들이 늘어났다.

1786년 7월 16일에 최창규(崔昌圭)를 비롯한 13명의 위항시인들이 옥류동 옥계(玉溪)에 모여 시사(詩社)를 결성하였다. 몇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인왕산 서당에서 글공부를 함께 한 죽마고우였으며, 집도 가까워서 자주 만나던 사이였다. 이들이 함께 시를 지으며 일생을 벗으로 살자고 맹세한 것이다.

이들이 엮은 수계첩 『옥계사(玉溪社)』에는 내규라고 할 수 있는 「범례(凡例)」와 매달 모이는 장소를 선정한 「옥계사십이승(玉溪社十二勝)」이 실려 있다. 「범례」의 한 조항에서는 매달 모이는 날짜를 이렇게 정해 놓았다.

1. 한달에 한번씩 모여 노는데, 반드시 대보름·봄가을의 사일(社日)·삼짇날·초파일·단오날·유두(流頭)·칠석·중양절·오일(午日)·동지·납일로 정하여 행한다. 낮과 밤을 정하는 것은 그때가 되어 여론에 따른다. 따로 모임 때에는 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초하루가 되어 글을 낸다.

이들은 주로 인왕산에 사는 동인들의 집에 찾아가 시를 지으며 놀았지만, 한 달에 한번씩은 장소를 정해 놓고 놀았다. 철따라 경치가 달라지므로, 그 철에 알맞는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던 것이다. 매달 모이는 장소는 「옥계사십이승」에 정해 놓았다.

1. 청풍계 산기슭의 계회(禊會) : 음력 7월. (옥류동 靑楓精舍)
2. 국화 핀 뜨락의 단란한 모임 : 8월
3. 높은 산에 올라가 꽃구경하기 : 2월 (인왕산 필운대)
4. 시냇가에서 갓끈 씻기 : 6월 (옥계)
5. 한길에 나가 달구경하며 다리 밟기 : 정월 보름 (청계천 광고)
6. 성루에 올라가 초파일 등불 구경하기 : 4월
7. 한강 정자에 나가 맑은 바람 쏘이기 : 3월
8. 산속 절간에서의 그윽한 약속 : 9월
9. 눈속에서 화룻가에 술 데우기 : 10월
10. 매화나무 아래에서 술향아리 열기 : 11월
11. 밤비에 더위 식히기 : 5월
12. 설달 그믐날 밤새우기 : 12월

이들은 1명이 시 1수씩, 매달 13수를 지어 156수를 한 책으로 엮었다. 아울러 겸재 정선의 제자인 임득명(林得明)이 동인들의 모임을 그림 4장으로 그렸다. 이렇게 지은 시 156수와 그림 4장, 그리고 동인들의 서(序)를 덧붙인 책이 바로 첫번째 수계첩『옥계사』이다. 이들의 수계첩은 그뒤로도 여러 차례 엮어졌다.

이들의 서재는 모두가 인왕산 아래, 옥계와 필운대 사이에 있었다.

* 천수경 : 송석원(松石園)

* 장 혼 : 이이엄(而已廣)

- * 임득명 : 송월시헌(松月詩軒) ... 이웃에 지덕구(池德龜)가 살았다.
- * 이경연 : 옥계정사(玉溪精舍) ... 1815년 5월 15일에 이사왔다.
적취원(積翠園) ... 아버지 이정린(李廷麟)에게서 물려받았다.
- * 김낙서 : 일섭원(日涉園) ... 아들 김희령(金羲齡)에게 물려주어, 서원시사가 모였다.
- * 왕 태 : 옥경산방(玉磬山房) ... 뒷날 육각현으로 이사갔다. (칠송정)

5. 서원시사(西園詩社)

김낙서(金洛瑞)의 일섭원을 물려받은 아들 김희령과 그 후배들을 중심으로, 위항 시사가 인왕산에서 계속 모였다.

6. 금서사(錦西社)

1817년 여름부터 규장각 서리 정수혁(鄭守赫 1800-1871)이 살던 화월당(花月堂)에서 위항시인들이 모여 시를 짓기 시작했다. 이 서재가 금천교(錦川橋)의 위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시사를 금서사(錦西社)라고 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였다는 금천교는 체부·통의·적선·내자 네 동네로 통하는 십자로에 있었는데 (그림12), 지금은 없어졌다. 금천도 복개되었으며, 적선동 귀퉁이에 금천시장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다. 장혼(張混)이 『옥계아집첩(玉溪雅集帖)』서문에서 송석원의 위치를 설명할 때 “금교 어구에서 서북쪽으로 3,4리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의 후배들은 인왕산 시냇가에서 3,4리를 내려와 금천교 부근에서 모이게 된 것이다. 그만큼 도심 쪽으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살림이 더 나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금서사의 중심인물은 장혼의 아들인 장욱(張旭)과 정수혁이다. 정수혁의 할아버지가 다천숙(茶泉塾)이라는 글방을 운영하면서 장혼을 가르쳤으므로, 장혼의 아들과 정수혁이 금서사를 함께 결성한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지은 시 가운데 64수를 골라서 엮은 『금서사갑을선(錦西社甲乙選)』 첫머리에 동인 9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한응범(韓應範)은 인왕산의 글방 선생이며, 최동익(崔

東益) · 위완규(魏完圭) · 김성관(金聲寬) · 손수홍(孫壽洪)은 정수혁의 글방 동문들이다. 정우혁(鄭宇赫)은 이들이 처음 모이게 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였다.

내게 호를 화계(花溪)라고 하는 사촌아우가 있는데, 진심을 품고 독실한 사람이다. 사람들과 두텁게 사귀고 마음을 잘 주었는데, 반드시 시를 주고 받으며 노닐었다. 정축년(1817) 여름에 기교에 사는 장욱, 금교에 사는 김성관과 더불어 자주 시를 주고 받았다. 이 무렵 옥계에 사는 김호(金灝), 운곡(雲谷)에 사는 위완규, 누곡(樓谷)에 사는 최동의 및 한응범, 손수홍 같은 사람들도 모두 시를 잘 짓는다고 이름난 자들이었는데, 날마다 서로 부르고 찾아다녔다.¹²⁾

이들은 모두 금천교 윗쪽에 살면서[君與我及諸彥咸宅錦橋之上], 서로 나이를 잊고 친구처럼 사귀며 시를 지었다. 장훈은 목활자를 만들어서 위항시인들의 시집을 많이 간행해 주었는데, 이들의 시선집인 『금서사갑을선』도 간행해 주었다.

7. 비연시사(斐然詩社)

가객(歌客) 장우벽(張友璧)이 날마다 인왕산 바위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를 가대(歌臺)라고 불렀다. 그의 아들 장혼(張混)은 나중에 목활자를 만들어서 위항의 자제들을 위하여 많은 교과서를 간행했으며, 직접 서당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에게 글을 배운 제자들만 해도 천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장지완(張之琬 1806-1867 이후)을 중심으로 시사를 결성했는데, 중심인물인 장지완의 호를 따서 비연시사(斐然詩社)라고 부른다. 이들은 인왕산 언저리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친구들이기도 한데, 동인 가운데 한 사람인 고진원(高晉遠)이 죽었을 때 장지완이 그의 묘지명에다 이렇게 썼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배우러 돌아다니면서 사방에 친구들을 구하였다. 임원유(林

12) 정우혁, 「갑을선서(甲乙選序)」, 『금서사갑을선(錦西社甲乙選)』

元瑜) · 유기와 함께 이 친구(고진원)를 장흔 선생의 문하에서 처음으로 만났다.¹³⁾

이들 네 사람에다 장흔의 손자인 장효무(張孝懋)와 박사유(朴士有) · 한백첨(韓伯瞻)이 더해져, 일곱 시인이 죽림칠현으로 자처하면서 시를 즐겼다. 고진유는 글방 선생이었고, 유기는 필경(筆耕)으로 생계를 꾸렸다.

8.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

칠송정은 필운대와 육각현 위쪽에 있었는데, 정내교(鄭來僑 1681-1759) 때부터 위항시인들이 모여서 시를 지었다. 그뒤로 오랫동안 버려져 황폐해졌는데, 1840년대에 위항시인 지식관(池錫觀)이 수리하여 다시 옛모습을 찾았다. 옥계사의 박윤묵과 그의 후배들인 박기열(朴基說) · 김희령 등이 지식관의 칠송정과 김희령의 일섭원에서 자주 모여 서원시사(西園詩社) 모임을 가졌다. 선배시인 박윤묵(朴允默)이 죽은 뒤에도 칠송정 자리에서는 옥류동 시인들의 모임이 계속되었다.

채원(菴園) 오횡묵(吳弘默 1834-?)의 시집인 『채원시초(菴園詩抄)』를 보면, 1853년 3월 칠송정에서 시사가 모여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칠송정시사는 국사(菊史) 조기완(趙基完)을 맹주로 하여 장우근(張佑根) · 장신영(張信永) · 김종대(金鍾大) · 오횡묵 등이 자주 만나 시를 지었다. 이사문(李士文) · 배동길(裴東吉) · 오도영(吳度榮) 등의 위항시인들도 칠송정에 와서 어울렸다.

이들 가운데 오도영과 장신영은 대원군의 심복으로 칠송정시사에 참여하였다. 경복궁을 증건하는 대사업을 벌이던 대원군은 위항지식인들과 손을 잡기 위하여 칠송정을 수리하여 주었다.

칠송정에는 위항시인들만이 아니라 대원군과 가깝게 지내던 박효관(朴孝寬) · 안민영(安旻英) 등의 가객들도 모여들어 위항문화의 꽃을 피웠다. 원래 박효관은 필운대에서 노인계(老人稷)와 승평계(昇平稷)의 맹주가 되어 수십년 동안 가단(歌壇)을 이끌었는데, 칠송정이 다시 지어지자 위항시인들과 어울리게 된 것이다.

13) 장지완, 『침우당집(枕雨堂集)』 권5, 「두은고근재묘지명(斗隱高近載墓誌銘)」

오횡목이 백운동에다 집을 지은 뒤로는 위항시인들이 오횡목의 초당인 채원(菴園)에 모여 시를 지었다. 지금 청운국민학교 뒷골목이 바로 백운동 골짜기였는데, 이곳에다 난초를 많이 심고 위항시인들을 모아서 시회를 열었던 것이다. 아마도 칠송정 자리를 박효관·안민영 등의 가객들에게 내어준 듯하다.

대원군이 권력을 잃으면서 칠송정도 따라서 활기를 잃어갔다. 1894년에 서양인에게 팔린 뒤에는 위항시인들의 발길이 아주 끊어졌다. 그들 가운데 경아전 중심의 위항시인들은 백운동 쪽으로 갔고, 역관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위항시인들은 청계천의 광통교 옆동네로 옮겨갔다. 역관 변진환(邊晋桓)의 집인 해당루(海棠樓)에서 강위(姜瑋 1821-1884)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 위항시인들이 모여 육교시사(六橋詩社)를 결성하면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는 경치 좋던 인왕산에서 경제의 중심지인 청계천 일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Ⅳ. 송석원의 변천사

1. 두 군데의 송석원

인왕산에서 모였던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송석원(松石園)이다. 송석원은 위항시인 천수경의 집 이름이자 위항시인들의 모임터로 이름났으며, 그의 집에서 자주 모였던 옥계시사(玉溪詩社)를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라고도 불렀다. 위항시인들의 후원자였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이들의 모임터에다 “송석원(松石園)”이라는 글씨를 써 주어(그림13), 송석원(松石園)이라는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송석원이라는 이름은 위항시인들만이 썼던 것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도 썼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곳에서 그 이름을 썼다. 옥류천이 흘러내리는 옥류동 일대, 지금의 옥인동 47번지에서 같은 이름을 쓴 집과 정원이 있었다.

안동 김씨 집권세력의 어른이었던 김수항이 1686년에 이 자리에다 청휘각(淸暉閣)을 지었으며, 그의 후손인 김학진은 그곳을 “송석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 송석원시사(옥계시사)는 1786년 7월 16일에 옥계가 흘러내리는

청풍정사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다. 이들도 계속 송석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대 권력자의 호화별장을 가난한 위항시인이 넘겨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천수경의 송석원은 초가집이었다고 밝혀져 있다.

김수항의 별장 청취각은 그의 아들 손자들을 거쳐서 민씨네로 넘어갔다가, 다시 친일파 윤덕영(尹德榮)에게로 넘어갔다. 가난한 위항시인 천수경에게로 넘어올 기회조차 없었다. 말하자면 같은 동네에 송석원이 두 곳에 있어, 호화별장 송석원은 당대의 권력자에게 대를 이어 넘겨지고, 그 이웃에 있던 초가집 송석원은 천수경을 중심으로 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시에 나오는 송석원은 어느 시인이 언제 썼는가에 따라서 다른 집을 가리킨 것이 된다.

2. 김수항의 청취각

옥인동은 옥류동(玉流洞)과 인왕동(仁旺洞)이 1914년에 합쳐진 이름이다. 조선 시대에는 옥류천이 흘러서, 이 일대를 옥류동이라고 불렀다. 옥류천 옆에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썼다는 “옥류동(玉流洞)” 세 글자가 최근까지도 새겨져 있었다.(그림14)

인왕산에는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 내렸다. 하나는 청운동 쪽에서 흘러내렸는데, 자하문터널에서 자하문길을 따라, 지금도 땅밑으로 흐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옥인동 쪽에서 흘러내리는 옥류천인데, 통인동 상업은행지점에서 위의 시냇물과 만나 금천교와 종침교를 거쳐 개천(開川)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시냇물들은 일제시대에 모두 복개되어, 지금은 땅속으로 흐르고 있다. 옥류천은 누상동과 옥인시범아파트, 그리고 옥류동 쪽에서 지류가 흘러내려 옥인동 47번지에서 모였는데, 이곳이 바로 송석원 터이다.(그림15)

안동 김씨 집안은 원래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청풍계 쪽에 늪연당(凜然堂)과 태고정(太古亭)을 짓고 살았다. 그의 아우인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도 인왕산을 좋아했는데, 그가 옥류동에 노닐다가 어머니의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수를 찾아다녔다.

갑인년(1614) 가을에 어머니께서 눈병을 앓으셨는데, “서산(인왕산)에서 영험한 샘물이 나와, 눈병 앓는 사람들이 그 물로 씻으면 곧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곧 날을 잡아 가보았다. 형님과 나와 찬(燦)·소(燾)가 같이 따라갔다. 인왕동에 들어가 고(故) 양곡(陽谷) 소세양(蘇世陽) 대감의 옛집인 청심당(淸心堂)·풍천각(風泉閣)·수운헌(水雲軒)을 지나갔다. 무너진 섬돌과 남은 주춧돌들을 거의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양곡은 문장이 세상에 뛰어난데다 부귀를 누렸으며, 또한 심장(心匠)도 지녔다고 일컬어져, 집 지음새가 매우 공교하고도 아름다웠다. 사귀며 노닌 사람들도 모두 일세의 문장가들과 이름난 이들이어서, 그들이 읊은 시들은 반드시 외어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백년도 채 안되었는데, (그 화려하던 집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다. 선비들이 후세에 믿고 남길 것이 이러한 건물은 아니다.

이곳을 거쳐 올라가자, 절벽과 폭포, 푸른 잔디와 푸른 언덕이 곳곳마다 아름다웠다. 계속 이곳을 지나 올라가자 돌길이 험준해져, 말을 버리고 걸어서 갔다. 두 번이나 쉬고난 뒤에야 샘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인왕산 중턱쯤 된 곳이었다. 둥그런 바위 하나가 나는 듯이 지붕처럼 가로지르고, 바위 끝은 지붕의 처마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예닐곱 명이 눈비를 가릴 수 있었다. 바위 바닥 조그만 틈으로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물줄기가 몹시 가늘어, 한 식경쯤 얹아 있어야 비로소 구덩이에 삼분의 일쯤 물이 찼다. 구덩이 둘레는 겨우 맷돌 하나 크기인데, 깊이도 또한 한 자가 되지 못했다. 물맛은 달고, 별다른 냄새가 없었으며, 아주 차갑지도 않았다.¹⁴⁾

청음이 찾아갔던 이 샘물이 바로 뒷날의 가재우물인데(그림16), 청음의 증손자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 1658-1722)이 이 물을 즐겨 마셔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샘물 때문에 이 땅을 구하고 집을 지었지만, 결국은 뒷날 이 샘물 때문에 송석원까지도 다른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뒤에 안동 김씨가 계속 정권을 잡으면서 인왕산 일대에 터를 넓혀 갔는데, 청음의 손자인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때에 와서는 옥류천 일대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지금의 옥인동 45번지는 원래 북부학당이 세워질 장소였는데 결국 세워지지는 않았으며, 1616년(광해군4)에 지수궁(慈壽宮)을 세웠다. 인조반정 뒤에

14) 김상헌 『청음집』 권38. 「유서산기(遊西山記)」

폐지되어 늙은 궁녀들이 살다가, 뒷날 자수궁터를 김수항이 사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청풍계와 마찬가지로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옥류동(玉流洞)” 세 글자를 새겨놓은 듯하다.

그는 옥류동에 청취각을 짓기 전에 살림집부터 지었으며, 먼 길 떠나는 친구를 이곳에서 송별하기도 하였다. 「옥류동수세(玉流洞守歲)」라는 시를 보면 1684년에는 이곳 집에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드디어 1686년에 팔각정으로 청취각을 지었다. 그가 청취각을 짓자, 이웃에 살던 남용익(南龍翼)이 시를 지어 축하하였다.

옥류동 연하(煙霞)에 비경이 열렸는데
 청취각 높은 누각에는 티끌이 끊어졌네.
 장안에 가을이 돌아와 집집마다 비가 내리고
 푸른 산에 폭포가 떨어져 골짜기마다 천둥이 치네.
 연꽃잎이 움직이자 물고기 떼는 흩어지고
 나무그늘 깊은 곳에 백로도 돌아오네.
 놀러온 나그네는 돌아갈 것도 잊고서
 처마 앞에 머물며 달 떠오르기를 기다리네.
 玉洞烟霞秘境開. 淸暉高閣絕浮埃.
 秋生紫陌千家雨, 瀑轉青山萬壑雷.
 荷葉動時魚隊散, 樹陰深處鷺絲回.
 遊人自爾忘歸去, 留待簷前霽月來.¹⁵⁾

이 시를 받고 김수항이 차운하여 시를 지었는데, 그 제목이 무척 길다. 「옥류동의 우리 집에다 새로 청취각을 지었는데, 제법 수석(水石)이 아름답다. 감히 시를 부탁하여 크게 빛낼 생각은 없었지만, 호곡(壺谷) 사백(詞伯)이 먼저 읊시 1수를 지어 보냈으며, 매간(梅澗) 형께서도 또한 화답하여 보내셨다. 산문(山門)이 이 시 덕분에 빛나게 되었음을 알겠다. 그래서 그 시에 차운하여 감사하는 뜻을 아뢰고, 아울러

15) 남용익, 『호곡집(壺谷集)』, 「추기청취각배유지흥봉정문곡상공안하(追記淸暉閣陪遊之興奉呈文谷相公案下)」
 청취각에 관한 시들은 모두 윤덕영이 엮은 『백수산강일람(碧樹山莊一覽)』에도 실렸으며, 윤덕영이 송석원을 인수한 뒤에 현판으로 만들어 정자 벽에 걸었다.

매옹(梅翁)에게도 바쳐 가르침을 구하고자 한다。」

층층 벼랑 중턱에 작은 정자를 지으니
 동쪽 변화한 먼지 구덩이에서 멀리 떨어졌네.
 반평생 수석을 좋아하는 버릇이 고질병 되어
 늘그막에 즐기며 산속 천둥소리를 듣네.
 처마 사이로 짙은 안개가 옷을 적시고
 베개 밑의 폭포 소리가 꿈을 깨우네.
 이제부터는 이 골짜기에 물색이 더할 테니
 벗님들이 진중하게 시를 부쳐 보내리라.
 層厓中省小亭開. 迥出東華百丈埃.
 半世膏肓存水石, 暮年 養取山雷.
 簷間宿霧侵衣濕, 枕底飛泉攪夢回.
 從此洞門增物色, 故人珍重寄詩來.

청취각 옆에 있던 남용익의 집에 일섭정(日涉亭)이 있었는데, 후원에 있던 초가 정자이다. 뒷날 송석원 옥계사의 동인 김낙서가 이 부근에 일섭원(日涉園)을 짓고 살았는데, 혹시 이 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수향이 청취각을 낙성할 때에 여러 아들들이 참석했는데, 노가재 김창업도 시를 지었다. 1686년에 지은 「옥동야좌감회(玉洞夜坐感懷)」라든가 「옥동동제인부운(玉洞同諸人賦韻)」같은 시들에 연못가에 지은 청취각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수향은 아들이 여섯이나 되지만, 창립(昌立)과 창순(昌順)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맏아들 창집(昌集)도 영의정 벼슬을 하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으므로, 청취각은 김창업이 물려받았다. 청취각을 지은지 30년이 되자 낡고 기울어져, 김창업이 1715년에 다시 지었다.

이끼가 바위 글자를 꾸미고
 단청이 물가 정자를 빛나게 하네.
 선군께서 맡기신 집이니

소자가 어찌 조금하게 하랴.
 무너진 집을 일으키자 사람들 모두 좋아하는데
 서글픈 마음에 나 홀로 술이 깨었네.
 단풍나무 소나무를 반드시 공경할찌니
 도끼가 찾아들지 않게 해야겠네.¹⁶⁾

노가재는 건강상 이 집을 좋아했는데, 청취각 뒤에 약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노가재가 늘 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최근까지도 이 우물을 가재 우물이라고 불렀다. 뒷날 청취각을 인수한 윤덕영은 가재우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예전의 청취각이었던 일양정(一陽亭) 뒤에는 가재정(稼齋井)이라는 우물이 있고, (바위)벽 위에는 가재(稼齋)의 글씨가 있다. 나는 항상 물을 마시면서 글을 읽고는, 가재공의 글 솜씨를 칭찬하였다.¹⁷⁾

노가재의 형제들도 이 집에 자주 찾아와 약수를 마시고, 시도 지었다. 노가재의 형제들이 당시 문단을 이끌었으므로, 청취각에는 사대부 시인들이 많이 모여 시를 지었다. “옥류동(玉流洞)”이라고 새긴 바위 안쪽에서 솟아 괴던 가재 우물은 1950년대까지도 사용했지만, 그 뒤 주택개발로 인해서 폐위졌다.

청취각은 그뒤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지다가, 김수항의 6세손인 한성부 판윤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이 증건했으며, 그의 아들인 영의정 김병국(金炳國 1825-1904)이 물려받았다가, 김병국의 재종형인 이조판서 김병교(金炳喬 1801-?)에게 넘겨졌다. 그러다가 김병교의 아들인 후몽(後夢) 김학진(金鶴鎭 1838-?)에 이르러 명성황후의 친정붙이인 민규호(閔奎鎬 1836-1878)에게 빼앗겼다.¹⁸⁾ 김학진

16) 김창업, 『노가재집(老稼齋集)』 권5, 「화숙씨청취각낙성창회운(和叔氏淸攄閣落成愴懷韻)」

17) 윤덕영, 『벽수산장일람』, 「일양정기(一陽亭記)」

윤평섭 교수는 송석원에 서 중학교 3학년까지 살았던 당숙 윤양로씨에게서 이 자료를 얻어보고 「송석원에 대한 연구」를 썼는데, 『한국정원학회지』 제3권 제1호(한국정원학회, 1984)에 실린 이 논문에서 이 책의 존재를 확인하고, 윤교수에게 부탁하여 1부 복사하였다.

18) 옥류동의 청취각 자리가 장동 김씨에서 명성황후의 친정 민씨네를 거쳐 윤비(尹妃)의 친정으로 넘겨지는 과정은 윤평섭의 논문 「송석원에 대한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는 윤덕영이 지은 『벽수산장일람』을 보고 정리하였다.

은 민규호에게 빼앗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옥류동의 송석원은 나의 선조 문곡선생의 별장이다. 선생의 옛집이 서울 북부 순화방(順化坊)에 있었는데, 그 뜰에 겨울철에도 청청한 여섯 그루의 나무가 있어, 슬하에 여섯 자제를 둔 것과 서로 맞았다. 그래서 집 옥호(屋號)를 육청헌(六靑軒)이라 하였다. 그 집에서 오른쪽으로 2-30보를 가서 등성이 하나를 넘으면 산골 물이 휘감아도는 아름다운 언덕과 골짜기가 있다. 이를 차지하니 아침 저녁으로 지팡이 끌며 거닐 만하고, 특히 청취각에서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구경할 만하였다. 가재우물 또한 제격이다.

여기를 옥류동이라 하는데, 그 옆 깔린 바위에 새긴 “옥류동(玉流洞)” 전암글씨는 혹 우암 송시열 선생의 필치라고도 전한다. 옥류동 골 안에 있는 “송석원(松石園)”이라 새긴 전암 각자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공의 필적이다. 기와집은 우리 집에서 번갈아 들어가 살기를 10여년 하다가, 황사(黃史) 민상공(閔相公)이 병으로 여기 우물물을 마시게 되어, 내가 갈 데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이 처음으로 바뀌었다.¹⁹⁾

김학진은 청취각을 “송석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처음부터 송석원은 아니었다. 추사가 위항시인 천수경의 집인 송석원에 써준 글씨를 옥계사 동인들이 1817년에 큰 바위에다 새겼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집자리가 청취각 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히 “송석원” 글씨가 새겨진 바위도 울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청취각 구역을 송석원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다.

3. 민규호 · 민영익과 송석원

민규호가 명성황후의 권력을 빙자하여 억지로 넘겨받은 뒤에, 송석원은 다시 그의 맏형인 대제학 표정(杓庭) 민태호(閔台鎬 1834-1884)가 샘물을 마시는 장소가 되

19) 김학진 「벽수산장(碧樹山莊) 일양정기(一陽亭記)」, 『벽수산장일람』 그는 청취각을 민태호에게 빼앗기고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이 집이 다시 윤택영에게 넘어가자 그 유래를 써서 준 것이다. 이 글은 그가 76세 되던 1913년에 지었는데, 김성근(金聲根)의 글씨로 써서 일양정에 걸려 있었다.

었다. 이 무렵에 청취각 주인이 바뀐 것은 지금의 대전 석교동에 살았던 석전(石田) 남대식(南大植 1823-1876)의 시에서도 입증된다. 그의 시집으로는 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 선생이 15,6세 되던 1930년에 친필로 편집한 『석민유고(石民遺稿)』가 전하는데, 그는 청취각 시회에 자주 참여하여 시를 지었으며, 청취각에 걸려 있던 장동 김씨들의 현판시에 차운하여 짓기도 하였다. 그런데 「상사회송석원(上巳會松石園)」이라는 시에 “이 집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느낌을 부쳤다[此園聞已易主云, 故寓感.]”라는 주가 덧붙여 있는 것을 보아서, 1876년 이전에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874년부터 민씨들이 집권했으니, 이 3,4년 동안에 청취각도 빼앗은 듯하다. 남대식도 그뒤부터는 민씨들과 자주 시를 지었다.

현재 옥인동 47-133에 남아 있는 민속자료 제23호 한옥이 1870년대에 지어졌더니, 민태호가 송석원을 인수한 뒤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민태호는 이곳에다 사조정(四照亭)과 옥정실(玉艇室)을 짓고, 시인들을 불러 시를 지었다. 이응진(李應辰)이 1880년에 지은 「사조정기(四照亭記)」가 남아 있다. 남대식같은 지방의 시인들도 많이 찾아와 시를 지었으며, 벼슬 얻기를 바라는 문객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그의 아들 민영익(閔泳翊)이 정원에다 스스로 “송석원(松石園)”이라는 이름을 써서 벽위에 걸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위항시인 천수경의 송석원은 없어지고, 민씨네 송석원만 남은 셈이다. 민영익의 아우인 민영린(閔泳璘)도 이곳에 머물면서 샘물을 마셨다고 한다.

이렇게 30여년을 지내다가, 민영린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송석원은 주인을 잃고 황폐해졌다. 그러자 마침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윤덕영이 1910년에 이곳을 사면서, 주인이 다시 바뀌었다.²⁰⁾ 송석원은 다시 당대의 권력자에게 넘겨진 것이다. 윤비(尹妃)의 큰아버지인 윤덕영은 한일합방 때에 받은 은사금으로 이곳을 산 듯하다.

4. 윤덕영의 벽수산장

윤덕영은 이 집을 산 뒤에 청취각을 일양정(一陽亭)으로 고치고, 「일양정 18영

20) 윤평섭, 같은 글, 38쪽.

(詠)」이라는 시를 지었다. 일양정의 이름다운 경치를 18가지로 정하여 칠언절구로 읊었으니, “인왕산의 상쾌한 기운[仁山爽氣]”, “백악산의 한가한 구름[白嶽閒雲]”, “옥류동의 푸른 절벽[玉流蒼壁]”, “늙은 소나무에 부는 바람[古松清風]” 등이다.

이 무렵 청회각의 옛주인이었던 민영익의 아우 민영찬이 프랑스 공사로 있는 동안에 어떤 프랑스 건축가로부터 설계도를 얻어가지고 왔지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건축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윤덕영에게 넘겨 주었는데, 진호영이라는 중국사람이 청부를 맡아 공사하였다. 독일인이 와서 공사를 감독하였고, 중국인 석공이 공사했다.²¹⁾

건축은 1914년부터 시작되어, 1917년에 준공되었다. 붉은 벽돌과 석재를 혼용한 2층 건물로서 Gothic식 탑 부분에서 그 장식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입면(立面)은 일반적인 대칭 양식을 버리고 비대칭으로 했고, 지붕면을 급경사로 처리(하여) 프랑스 maison 풍의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지붕은 Dormer Window로 처리(하여) Attic에까지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석재는 각 독립주(獨立柱), 건물 우각부(隅角部)의 Quoin, 창호(窓戶) 주위에 사용된 붉은 벽돌과 조화되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현관 부분과 서쪽 발코니의 독립주 등은 Tuscan Order로 했다. 내부는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했고, 독일제 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했다.(그림17)²²⁾

본건물 외에 별관(3층)과 부속건물(14동)이 주변에 있었다. 연건평 1,175평으로 대단한 규모였다. 대지 면적은 3,000평이었다²³⁾ 진호영은 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중국의 종교단체인 기만학회(紀卍學會)를 열 때에 완공하였으며, 그 학회의 예배당과 사무실로도 사용하였다.

민씨들이 사조정(四照亭)을 세우고, 윤덕영의 「일양정18영」에 「동루요월(東樓邀月)」이나 「북각관등(北閣觀燈)」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을 보아서, 송석원 구내에는 여러 개의 누각과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200평 되는 연못이 있고

21) 이 부분은 김정동 교수의 논문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8)」(『건축사』1982년 3월호) 36쪽과 윤평섭 교수의 논문 40쪽을 함께 참조하였다.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22) 김정동, 같은 글.

23) 본건물 222평, 별관 157평, 지하실 308평, 부속건물(14동) 280평, 합계 1,175평.- 김정동, 같은 글, 36쪽.

그 가운데 구대(龜臺)라는 바위가 있었다. 한옥 서쪽에 있던 연못은 지금 개인주택의 배수구 모양으로 바뀌었다.

윤덕영은 송석원을 사들인 뒤에 호를 벽수거사(碧樹居士)라 하고, 집 이름을 벽수산장(碧樹山莊)이라고 했다. “벽수(碧樹)” 두 글자는 노가재 김창업이 지은 시에서 따왔다고 한다.²⁴⁾ 그리고 김수항이 청취각을 짓기 시작한 이야기부터 민씨네를 거쳐서 자신이 인수하기까지의 사연, 청취각·일양정·벽수산장에 관한 시와 기문(記文) 들을 모아서 1913년에 『벽수산장일람』이라는 책을 신할자본으로 간행했다. 이 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윤용구, 「벽수산장일람(碧樹山莊一覽) 서(序)」, 1913년

윤덕영, 「일양정기(一陽亭記)」

김수항, 「옥동폐거신구청취각조유수석지승이불감위구시치대계내몽호곡사백선이일률
기제매간태형우속이화지편각산문차생안색의자보기운이신사의겸봉매옹구교
(玉洞弊居新構淸暉閣粗有水石之勝而不敢爲求詩侈大計乃蒙壺谷詞
伯先以一律寄題梅欄台兄又屬而和之便覺山門自此生顏色矣茲步其
韻以申謝意兼奉梅翁求教)」

남용익, 「추기청취각배유지흥봉정문곡상공안하(追記淸暉閣陪遊之興奉呈文谷相
公案下)」

이익상, 「차호곡제문곡상공청취각운(次壺谷題文谷相公淸暉閣韻)」

김창업, 「옥동동제인부운(玉洞同諸人賦韻)」

윤덕영, 「일양정경차문곡선생청취각운(一陽亭敬次文谷先生淸暉閣韻)」

, 「벽수산장근보노가재공옥동부운(碧樹山莊謹步老稼齋公玉洞賦韻)」

윤용구, 「차일양정운(次一陽亭韻)」, 1913년

, 「차벽수산장운(次碧樹山莊韻)」, 1913년

이응진, 「사조정기(四照亭記)」, 1880년

김학진, 「벽수산장일양정기(碧樹山莊一陽亭記)」, 1913년

윤택영, 「일양정석각소기서후몽김공정기후(一陽亭石刻小記書後夢金公亭記後)」,
1913년

24) 윤덕영, 『벽수산장일람』, 「일양정기」

윤덕영이 “벽수(碧樹)” 두 글자를 따온 김창업의 시는 『노가재집』 권1에 실린 「옥동동제인부운(玉洞同諸人賦韻)」이다.

윤덕영, 「제일양정(題一陽亭)」

, 「일양정 18영」

민병석, 「서일양정십팔영첩후(書一陽亭十八詠帖後)」, 1913년

송석원에는 바위에 새겨진 글자가 네 군데 있었는데, “옥류동(玉流洞)”, “송석원(松石園)”, “구대(龜臺)”, “벽수산장(碧樹山莊)”이다. 이 바위의 존재를 확인하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벽수산장(碧樹山莊)” 녀 자는 1911년에 윤용구가 앞뜰 바위에 쓴 것이며, “구대(龜臺)” 두 자는 김수항의 6세손인 김수근이 앞뜰 연못 가운데 있던 거북바위에 쓴 것이다. “옥류동(玉流洞)” 석 자는 우암이 쓴 것이며, “송석원(松石園)” 석 자는 추사가 쓴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 집에 살았던 서용택에 의하면 “송석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는 시멘트로 발랐으며, “옥류동”이라고 새겨진 바위는 집을 지을 때에 집장사들이 깨서 없었다고 한다. 가재우물에 있던 가재의 글씨도 역시 시멘트로 발라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²⁵⁾

윤평섭 교수는 송석원 터를 답사하면서 서용택과 윤양로의 자문을 얻어, 1940년대의 송석원 모습을 이렇게 재구성하였다.(그림18)²⁶⁾

5. 천수경의 송석원

1) 옥류동으로 이사오기까지

옥류동 일대에는 예전부터 많은 위항시인들이 살았으며, 그들의 자제들도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다. 서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한 동네에 살며 시사를 결성했다. 장훈은 글방 친구 신도흙(愼度欽)의 제문을 지으면서, 자신과 그의 집안은 조부 때부터 3대를 내리 사귀는 사이이며, 필운봉 아래 문옹서숙(文翁書塾)에서 함께 글을 배우며 자랐다고 술회하였다.²⁷⁾

이들이 주로 모인 곳은 천수경(千壽慶 1758-1818)의 집인 송석원이어서 이들의

25) 윤평섭, 같은 글, 44쪽.

26) 같은 글, 45쪽.

27) 장훈, 『이이엄집(而已集)』 권12, 「제신여장문(祭愼汝長文)」

모임을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라고도 하지만, 처음부터 송석원에서 모였던 것은 아니다. 천수경이 옥류동으로 이사오기 전에는 옥계(玉溪)에서 모였으며, 이름도 옥계사(玉溪社)라고 하였다.

장훈과 그의 친구들은 옥계에서 자주 모이다가, 1786년 7월 16일 모임에서 시사를 결성하였다. 이날의 장소는 옥계 옆의 청풍정사(靑楓精舍)였다. 달 밝은 밤 소나무 사이에 흠어져 앉아 술 마시며 시를 읊다가, 시사를 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²⁸⁾ 이 자리에서 시사를 결성하고 그 이름을 옥계사(玉溪社)라고 했으며, 나이에 따라 서차(序次)를 정하고, 시사의 범례(凡例)를 정하였다. 「서차(序次)」에 실린 동인의 이름은 13명인데, 당시 천수경의 호는 적여재(積餘齋)였다. 송석원이라는 호를 쓰지 않았으니, 아직은 송석원 시대가 아니었다.

천수경과 장훈은 어렸을 때부터 인왕산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늘 옥계로 이사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천수경이 먼저 이사오자, 장훈이 찾아와 시를 지었다.

예전 내 나이 열에닐곱 때에
 이곳에 놀러오지 않은 날이 없었지.
 바윗돌 하나 시냇물 하나도 모두 내가 가졌고
 골짜기 터럭까지도 모두 눈에 익었었지.
 오며 가며 언제나 잊지 못해
 시냇가 바위 위에다 몇 간 집을 지으려 했었지.
 그대는 젊은 나이로 세상에서 숨어 살 생각을 즐겨
 나보다 먼저 좋은 곳을 골랐네그러.
 내 어찌 평생동안 허덕이며 사느라고
 이제껏 먹을 것 따라다니느라 겨를이 없었나.
 싸리 울타리 서쪽에 남은 땅이 있으니
 이제부터 그대 가까이서 함께 살려네.
 이 다음에 세 길을 마련하게 되면
 구름 속에 누워서 술방울과 밤톨로 배 불리세나.²⁹⁾

28) 임득명, 『옥계사』수계첩, 「옥계사서(玉溪社序)」

이 시가 장흔의 문집인 『이이엄집』 권2 칠언고시 두째장에 실린 것을 보아, 1790년대 초기에 지은 시 같다. 이들은 자주 수계첩을 엮었는데, 1791년에 엮은 수계첩에는 천수경의 호가 송석원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미 옥류동으로 이사와서 솔숲과 바위가에 초가집을 지었기에, 호도 송석원(松石園)이라고 바꾼 것이다. 이때부터 천수경의 송석원 시대가 시작된다.

천수경의 집인 송석원 이름과 자호의 유래는 조희룡(趙熙龍)이 지어준 전기에 잘 소개되어 있다.

천수경의 자는 군선(君善)이다. 집안이 가난했지만 글 읽기를 좋아했으며, 시를 잘 지었다. 옥류천(玉流泉) 위 소나무와 바윗돌 아래에 초가집을 짓고는, 스스로 호를 송석도인(松石道人)이라고 하였다. 바위벽 위에 송석원(松石園)이라고 새겨진 예서(隸書) 글씨는 완당(阮堂) 학사가 쓴 것이다.

그는 동인을 모아 무리를 나눠 시를 지었는데, 하루도 그만 둔 날이 없었다. 세상에서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송석원 모임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다섯 아들이 있었으니, 일송(一松) · 이석(二石) · 삼족(三足) · 사과(四過) · 오해(五何)이다. “송”과 “석”은 자기의 집으로 이름을 삼은 것이고, “족”은 아들 셋이면 넉넉하다는 뜻이다. “과”는 네 아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고, “하”는 이게 웬일이냐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전했다.³⁰⁾

2) 송석원의 전성시대

이들이 수계(修稷) 때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어 엮은 수계첩은 현재 3권이 전하고 있다. 1786년에 13명이 모여 처음 시사를 결성할 때의 수계첩은 현재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791년 6월 유두일에 9명이 모여 엮은 『옥계아집첩(玉溪雅集帖)』은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역시 1791년에 15명이 모여 엮은 수계첩 『옥계사장(玉溪社藏)』은 대영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 소장되

29) 장흔, 『이이엄집』 권2, 「우과천군선옥계이거(偶過千君善玉溪移居)」

30) 조희룡, 『호산외기(壺山外記)』, 「천수경전(千壽慶傳)」

어 있다.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계첩에는 시사를 시작한 지 5년 동안에 1명이 세상을 떠나고 다시 3명이 가입한 사실을 밝히면서, 범례를 고쳤다. 이 수계첩에는 갑자중수(甲子重修)가 덧붙여 있어, 13년 동안의 변모를 엿볼 수도 있다. 제명(題名) 뒤에는 「옥계십경(玉溪十景)」이 소개되어 있는데, 1786년에 정한 옥계사십이승(玉溪社十二勝)이 장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옥계십경은 이들이 자주 모이던 옥계의 대표적인 경치 열 군데를 정한 것이다.

이들이 꼽은 옥계십경은 소오계견(小塢鷄犬) · 반동전포(半洞田圃) · 천류주야(泉流晝夜) · 산기음청(山氣陰晴) · 절애경람(絕崖輕嵐) · 취봉반조(翠峰半照) · 미화농향(美華濃香) · 가목번음(嘉木繁陰) · 일계명월(一溪明月) · 수린심설(數隣深雪)이다.

옥계십승의 모습은 전부 임득명이 그렸으며, 그림 뒷장에는 같은 제목으로 지은 시 6수가 실려 있다. 10경 첫장에는 「옥류전학(玉流全壑)」이라는 그림과(그림19) 5명의 시가 덧붙여 있다. 아마도 옥계 옆에 있던 송석원에 동인들이 모여서 시 짓는 모습을 그린 듯한데, 옥계십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수계첩에는 모두 11장의 그림과 65수의 시가 실려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된 수계첩에는 이인문이 그린 「옥계청유도(玉溪淸遊圖)」와(그림20) 김홍도가 그린 「월야시음도(月夜詩飲圖)」가(그림21) 덧붙여 있어서, 이들이 옥계와 송석원에서 모여 놀며 시 짓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인문의 그림에는 큰 바위에 “송석원(松石園)”이라는 글씨가 써어져 있어, 술숯과 바위로 둘러싸인 송석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옥계의 초가집 옆에 “운림서소(雲林書所)”라는 글씨가 써어져 있어, 달밤에 시냇가에서 조출하게 모여 시 짓고 술을 마시던 이들의 모임터를 확인할 수 있다.

천수경은 송석원을 짓고나서 1793년 늦봄에 옥계사 동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때 읊은 시들을 모아서 『옥계계축상춘시축(玉溪癸丑賞春詩軸)』을 엮었다. 이덕함은 『풍요속선(風謠續選)』 발(跋)에서 “천수경이 옛사람의 풍류를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여, 계축년(1793) 봄에 (왕희지의) 난정고사(蘭亭故事)를 본받아 송석아회(松石雅會)를 열었다”고 하였다.

경치 좋은 송석원이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되자, 옥계사 동인들은 더욱 늘어났다. 장흔이 1812년에 지은 시 「부송석원회회자오십여인차이의산운(赴松石園會會者五十餘人次李義山韻)」을 보면, 이날 송석원 모임에 50여명이나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장지완은 천수경의 전기에서 “집이 좁아 밥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조희룡도 천수경의 전기에서 “시를 아는 사람들이 송석원 시회에 참여치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처럼 송석원 모임이 성황을 이뤄 천수경의 집이 좁을 정도가 되자, 장안의 위항시인 수백명이 일년에 두 차례씩 문통(文通)을 보내 연당(蓮塘)에서 모여 시를 지었다. 이 모임이 바로 백전(白戰)이다.

3) 『송석원산사(松石園山史)』와 『옥계시사(玉溪詩史)』

천수경이 송석원을 수리하느라고 잠시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임득명이 지은 시 「송석원주인반기구서수증퇴함과초과유구시풍경희이시하(松石園主人返其舊樓修葺頽檻破礎頗有舊時風景喜以詩賀)」에 의하면, 1816년 윤6월에 돌아온 듯하다. 장흔의 문집인 『이이엄집』 권10에도 이 무렵에 몇몇 동인들과 함께 지은 「송석원정중수연구(松石園亭重修聯句)」와 「군선반고원초당연구(君善返故園草堂聯句)」가 실려 있다.

임득명(林得明)의 시집 『송월만록(松月漫錄)』 권4에는 이해 9월 2일에 지은 시부터 9월 그믐날에 지은 시까지,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동인들이 인왕산에 모여서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9월 9일의 송석원 정례모임에서 지은 시 제목에는 참석자 26명의 자(字)가 실려 있다.

이들은 그 이듬해인 1817년에도 범례대로 자주 모였다. 정월 23일에는 임득명의 송월시헌(松月詩軒)에 모여서 매화를 구경하며 시를 지었고, 2월 길일에는 제주당(載酒堂)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를 지었다. 삼짚날에는 이경연의 옥계정사에 모여 시를 지었다. 이들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추사가 송석원 바위에다 팔분(八分)으로 “송석원(松石園)”이라 써주고, 우물 위에는 해서로 “우혜천(又惠泉)”이라 써주었는데, 3월에 글자를 다 새겼다. 우혜천은 이들이 모여서 시를 지을 때에 차를 끓이려고 물을 길어올리던 우물이었다. 마침 지산(芝山)이 아들을 장가보내게 되어 범례에

따라 동상례(東床禮)를 차렸으므로, 동인들이 많이 모여 시를 지으며 경사를 즐겼다.³¹⁾ 천수경이 환갑을 지나고 죽기까지가 송석원 모임의 전성기였다. 송석원의 시와 이야기를 실은 『송석원산사(松石園山史)』는 이 무렵에 엮은 듯하다.

이들은 『옥계시사(玉溪詩史)』라는 시권도 엮었는데, 같은 성격의 시권이거나 같은 책인 듯하다. 이 책의 성격은 박윤묵이 지은 「옥계시사서(玉溪詩史序)」에 밝혀져 있는데, 송석원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시로 지어 엮은 것이다. 본격적으로 송석원의 역사를 쓴 책이 아니라, 송석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줄 시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4) 천수경 이후

천수경의 초기집 송석원은 몇십년 동안 위항시인들의 모임터로 이름났지만, 1818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송석원 모임이 시들해지자 주인이 바뀌었다. 옥계사(玉溪社)의 모임은 계속되었지만, 주인이 없는 송석원에서 모이지는 않았다. 천수경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동인들이 모여서 수계첩을 엮었는데,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무인개수(戊寅改修)본 『옥계사』의 「계사청금(溪社淸襟)」에는 이미 천수경의 이름이 빠지고 없다. 이제는 송석원이 더 이상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아니었던 것이다.

조희룡은 천수경의 전기에서 그가 죽고난 뒤의 송석원 모습과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기록하였다.

유유한 한 세상에 문장으로써 능히 벗들을 모았던 자는 얼마 안된다. 지난번에 송석원을 지나다보니, 몇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푸른 소나무와 옛스런 바윗돌 사이에서 시 읊던 자들을 생각해보니, 지금 몇 사람 남아 있지 않다.

천수경과 조희룡(1789-1866)의 나이 차이는 30년밖에 안된다. 천수경의 전기

31) 이날 동인들이 송석원에 모여서 추사의 글씨를 새기던 모습을 임득명이 시로 지었는데, 『송월만록』권4에 실린 이 시의 제목만 소개한다. 「상사(上舍) 김정희가 팔분체로 송석원(松石園)이란 글자를 바위머리에 써주고, 또 해서로 우혜천(又惠泉)이란 글자를 우물 위에다 써주었다. 새기기를 마치고 옥계사의 여러 동인들이 송석원에 모여 술을 마셨다. 아울러 지산(芝山)이 아들을 장가보내다면서 동상례(東床禮)를 치렀다.」

실려 있는 『호산외기(壺山外記)』를 1844년에 다 지었으니, 아무리 늦게 잡아도 천수경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밖에 안되었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그 사이에 주인이 벌써 여러번 바뀌었다니, 천수경 당대의 송석원 모습은 이미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김수근(金洙根 1798-1854)이 청취각을 증진했으니, 아마도 그 무렵에 송석원 옛자리를 사들인 듯하다. 그래서 추사가 써준 “송석원(松石園)”이라는 바위 글씨가 자연스럽게 청취각 울 안으로 들어가고, 천수경의 초가집은 없어졌으며, 청취각 일대가 송석원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김학진도 자연스럽게 “옥류동의 송석원은 나의 선조 문곡선생의 별장이다.”라고 술회하게 되었다.

6. 윤덕영의 벽수산장 이후

송석원이 한때는 중국의 종교단체인 기만학회(紀卍學會)의 예배당 겸 사무실로 쓰였다고 하며, 또 한때는 서당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사람이 웬만큼 사는 마을이라면 글방이 있었으며, 인왕산에도 글방이 많았다. 위항의 자제들이 이곳에서 글을 배웠고, 자란 뒤에는 위항시사를 결성했다. 1922년까지는 서울 안에도 강미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꽤 있었다.

그러나 서당이 허가제가 되자, 그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서울 풍속에 정통한 조풍연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글방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허가제를 실시한 결과, 학교라는 새 교육 제도에 밀려서 학생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겨우 독선생(獨先生)을 모셔 앉히고 주인집 자제의 동접(同接)으로 일가·친척 아이를 받아주는 데만이 명맥을 이었다.³²⁾

그래서 독선생을 모시고 친척 아이가 옆에 끼어앉아 글공부하는 형태로 서당은 바뀌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서당이 아니라 요즘의 개인교습 형태이다. 서당 건물에 마을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 글공부하는 서당 형태는 1920년대에 대부분 없어졌다.

32) 조풍연, 『서울잡학사전』(정동출판사, 1991), 372쪽.

인왕산 일대에도 물론 신식학교들이 들어섰다. 필운대만 하더라도 1898년 내자동에서 시작된 배화학당(培花學堂)이 1915년 누하동으로 옮겼다가, 1925년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면서 필운대 고개까지 확장했다. 1917년에는 그 안에 배화유치원까지 설립되어, 서당에 갈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였다. 신식 교육기관이 늘어나면서 인왕산의 서당들은 다 없어졌다. 조풍연은 이어서, 서울의 마지막 서당이 송석원 건물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2년, 들어간 뒤에도 4년 동안 글방에 다녔는데, 네 번이나 옮겼다. 글방이 해산된 때문이다. 그러다가 19살이 되던 1933년 송석원(松石園, 옥인동 엉커크 들었던 집)에서 반년을 배웠는데, 이것마저 해산으로 중단됐다. 아마 이것이 서울서는 마지막 서당이었을 것이다.³³⁾

조풍연은 서당을 몇 군데 옮겨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폐쇄되었다. 더 이상 옮겨가서 배울 서당이 없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서당이자, 그의 기억으로는 서울의 마지막 서당이 바로 송석원에 있었다. 이것이 1930년대 송석원의 변모된 모습이다.

1941년에 윤덕영이 죽자 이 집터는 미쓰이 재벌로 넘어갔으며, 8.15 광복 뒤에는 적산으로 처리되어 한때 덕수병원으로 사용되었다. 서용택에 의하면 일양정은 1946년에 헐렸다고 한다.³⁴⁾ 벽수산장은 한국전쟁 중에 조선인민위원회와 U.N.군 장교숙소로, 그뒤에는 UNCURK(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회)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벽수산장은 1966년 4월 5일에 환기설비를 수리하려고 환기통을 산소용접으로 자르다가 불이 천정에 붙어, 건물을 불태웠다. 그리고는 1973년 6월에 도로정비사업을 한다면서 철거해버렸다.³⁵⁾ 그 자리는 한동안 긴 담으로 둘러 있다,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들어섰다.

33) 같은 쪽.

34) 윤평섭, 같은 글, 40-1쪽.

35) 이 부분은 김정동 교수의 논문에서 인용했는데, 윤평섭 교수의 논문에서는 "1969년 여름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버렸다"고 기록되었다.

7. 지금의 옥인동 47번지

송석원 자리는 옥인동 47번지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497개의 지번으로 분할되었다. 송석원 하나가 있던 47번지가 주택지로 개발되면서, 497채의 집이 들어선 것이다. 실제로는 그 이상의 가구가 살고 있으니, 언덕영의 벽수산장과 그 서양식 정원이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이 집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막바지에 경복교회가 있는데, 그 언덕에 서면 북악산·인왕산·남산이 한눈에 보인다. 예전에도 이러한 전망 때문에 삼승정이나 송석원을 지었을 것이다.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니, 경복궁이 정궁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이곳에 정자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언덕영 시대에 본채였던 한옥(그림22), 속칭 윤비가(尹妃家)의 지번은 옥인동 47-133인데, 대지 162평에 건평 79.27평으로 줄어들었다. 골목 입구에는 돌계단과 대문의 기둥이 남아 있어, 화려하던 옛모습의 일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일대에 작은 집들이 수없이 들어서면서 정원이 다 없어져, 웅색하기 그지없다. 비가 새는데도 기왓장을 고치지 못해, 지붕에는 천막이 흉하게 씌워져 있다. 1977년에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되었는데, 명칭은 흔히 옥인동 서용택가(徐龍澤家)로 소개되고 있지만 현재 거주자는 다른 사람들이며, 여러 명의 공동소유로 분할 등기되어 있다. 이 일대에 규모나 격식에 어울리지 않는 석물 장식을 쓴 집들이 많은 것을 보면, 송석원이 분할되면서 그 석재들을 가져다 쓴 듯하다.

이 일대를 멀리서 보면 능선과 골짜기가 구분되지만, 들어가보면 옥류동 골짜기였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경복교회를 중심으로 내려다보면 왼쪽 능선부터는 신교동, 오른쪽 능선부터는 누상동이 시작되는데, 이 두 능선 사이의 골짜기가 모두 옥인동 47번지이다. 47번지는 현재 옥인동 면적의 절반쯤 된다.

1998년 3월에 K.B.S.에서 “조선왕조실록-인왕산의 위항문화”편을 제작하면서 옛 주민들의 지문을 얻어 나름대로 “송석원” 바위가 들어서 있다는 집을 찾아냈지만, 과연 그 바위가 송석원 바위인지는 확실치 않다. 바위가 너무 작았으며, 글자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도의 바위라면 47번지 일대에 여러 군데 남아 있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좁은 골목을 끼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어, 옛그림 몇 장만

가지고 천수경의 “송석원” 자리를 찾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V. 결론

이 논문은 조선후기 인왕산에서 활동했던 위항시인들의 모임터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견하고 걱정했던 대로, 그들의 모임터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없었다. 궁궐이나 관청과는 달리, 위항시인들의 초가집이 있었던 곳은 원래의 모습은 물론이고, 있었던 곳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은 송석원이다. 송석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있고, 그림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겨우 200년 지난 지금의 옥인동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인왕산의 바위산 모습은 그대로여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옥류동 골짜기에 지어진 500여호의 크고 작은 집들 속에서 초가집 송석원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골의 옛 건물들이 아직도 예전 분위기를 지니며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안에 자료들도 보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불과 몇십년 사이에 급속도로 변화한 서울 안에서 옛집들의 모습이러든가 자취를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였다.

그나마 얻어낸 결과가 있다면, 옥류천가에 송석원이라고 불려진 곳이 두 군데 있었다는 점이다. 이 두 집에 모여든 시인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관계는 없었다.

위항시인들의 모임터였던 송석원과 윤덕영의 별장이었던 송석원은 같은 동네에 있었지만 다른 집이다. 윤덕영의 집 자리에 사대부 시인들이 모이게 된 것은 문곡 김수항이 1686년에 청취각을 지으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의 후손 김학진은 뒷날 이곳을 회상하면서 “옥류동의 송석원은 우리 선조 문곡선생의 별장”이라고 하였다. 이 집 자리는 김수항의 8세손인 김학진에게 와서 왕실의 외척 민규호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윤비의 큰아버지 윤덕영에게 넘어갔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별장으로 250년이나 내려왔던 것이다. 이 집자리는 그 동안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호화별장으로 지어지고, 또 증건되었다. 주인이 바뀔 때마다 집을 새로 짓고, 정자 이름도 바뀌었으며, 모여서 시를 지었던 시인들도 달라졌다. 위항시인들의 모임터인 송석원이 이 공간에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다.

위항시인 천수경의 집이었던 송석원은 윤덕영의 벽수산장보다 윗쪽이었다. 이인문의 그림에 보면 옥류천 건너편에 송석원(松石園)이라는 글씨가 써여 있는데, 이 글씨는 이들의 후원자였던 추사 김정희가 써준 것이다. 그런데 이 바위는 천수경이 죽은 뒤에 장동 김씨네 집 안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김학진이 자기네 별장을 송석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송석원 시대가 끝나면서 후배들은 모임터를 옮겼다. 금서사(錦西社)는 이름 그대로 금천교(錦川橋) 서쪽, 지금의 금천시장이 있는 동네로 내려갔다. 직하사(稷下社)는 사직단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초가집 송석원은 자연스럽게 장동 김씨네 별장 구역 안으로 편입되었다.

벽수산장 구역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넷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추사의 글씨인 “송석원(松石園)”이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동네에 송석원이 있었다고 전해져 왔는데, 천수경의 집이자 위항시인들의 모임터였던 송석원이 그렇게 넓고 컸던 것은 아니다. 천수경의 송석원은 초가집의 수명이 얼마 안되듯이, 곧 무너진 듯하다.

지금 송석원 모임터의 자취로는 인왕산의 모습만 남아 있고, 옥류동 골짜기는 모두 주택들 속에 파묻혔다. 옥류천도 아직까지 흐르고는 있지만 그 위에 복개되어 있어, 하수도 배수구 사이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린다. 위항시사 송석원의 모임터라고 팻말을 붙여줄 만한 곳도 제대로 찾아낼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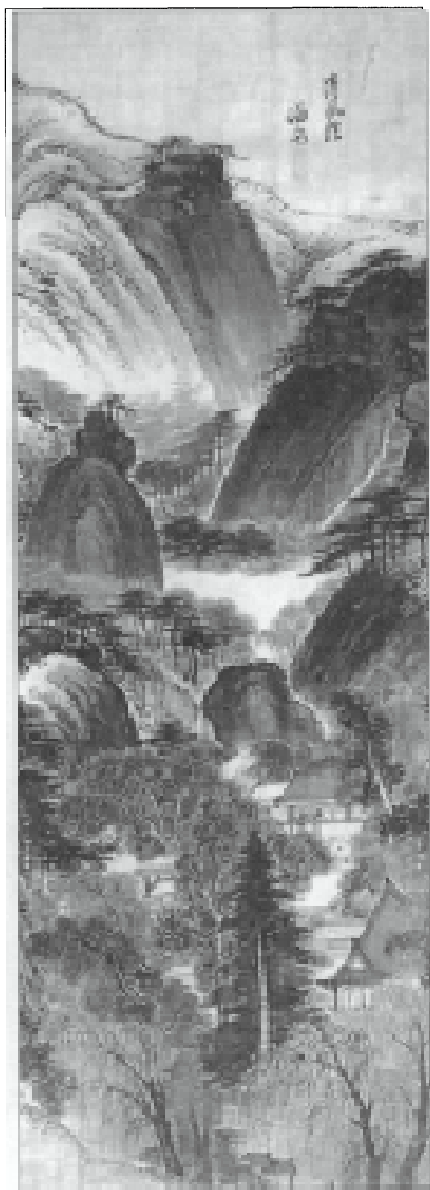
[5 7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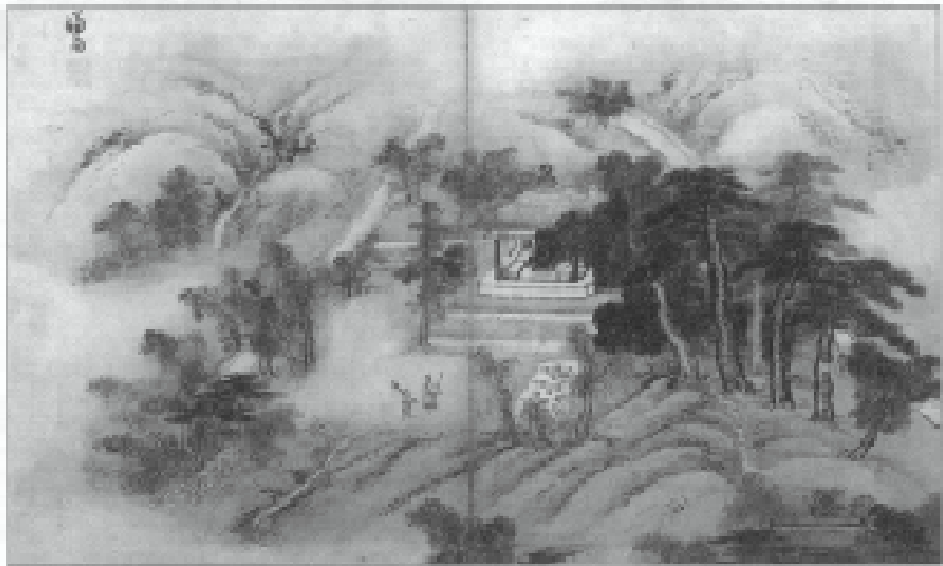
[그림 3]



【 그림 4 】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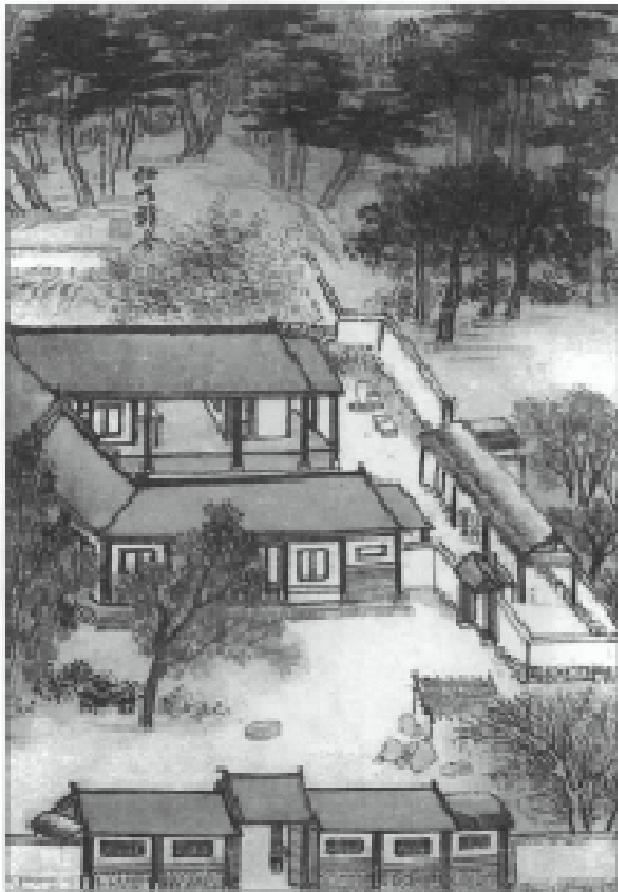
[2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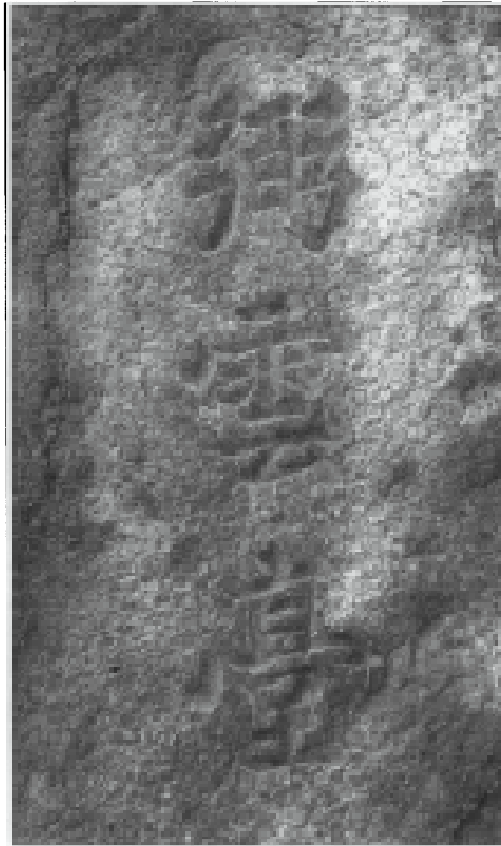
[古 蹟 圖]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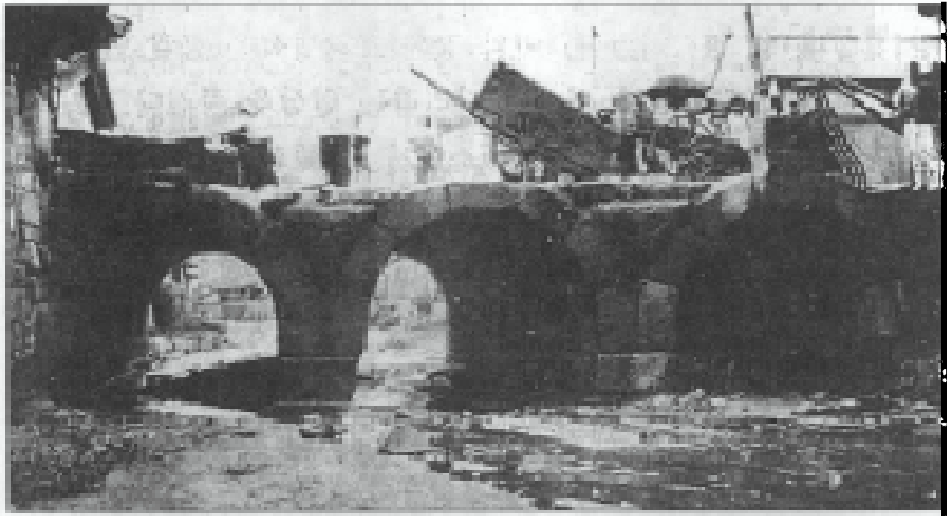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0]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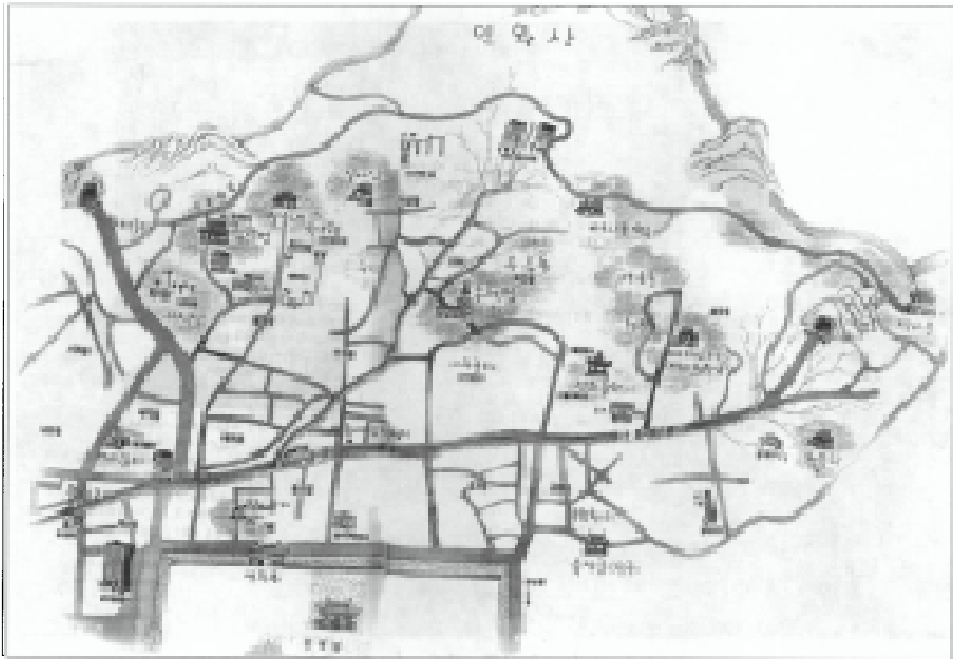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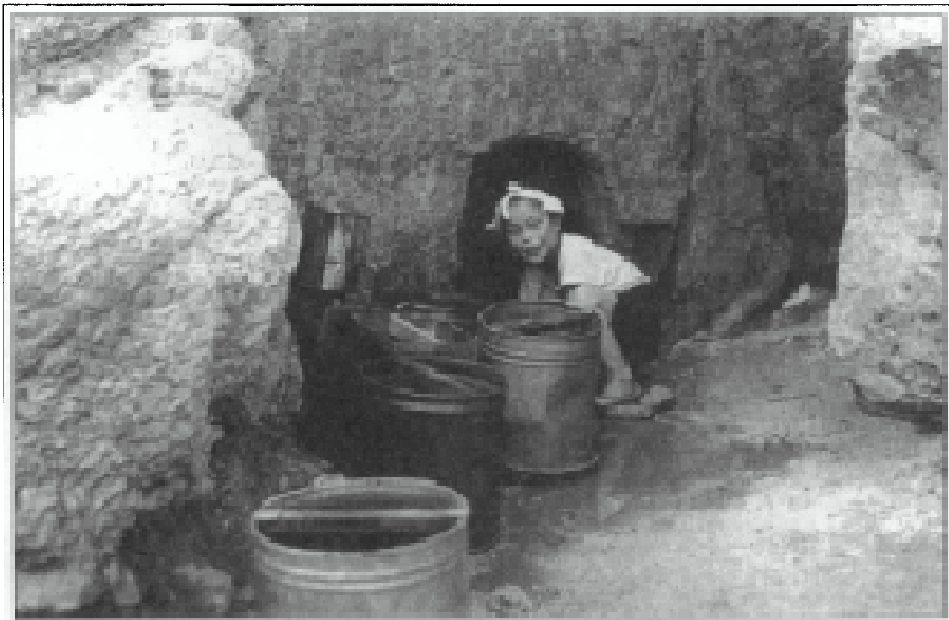
[2 1 1]



[그림 14]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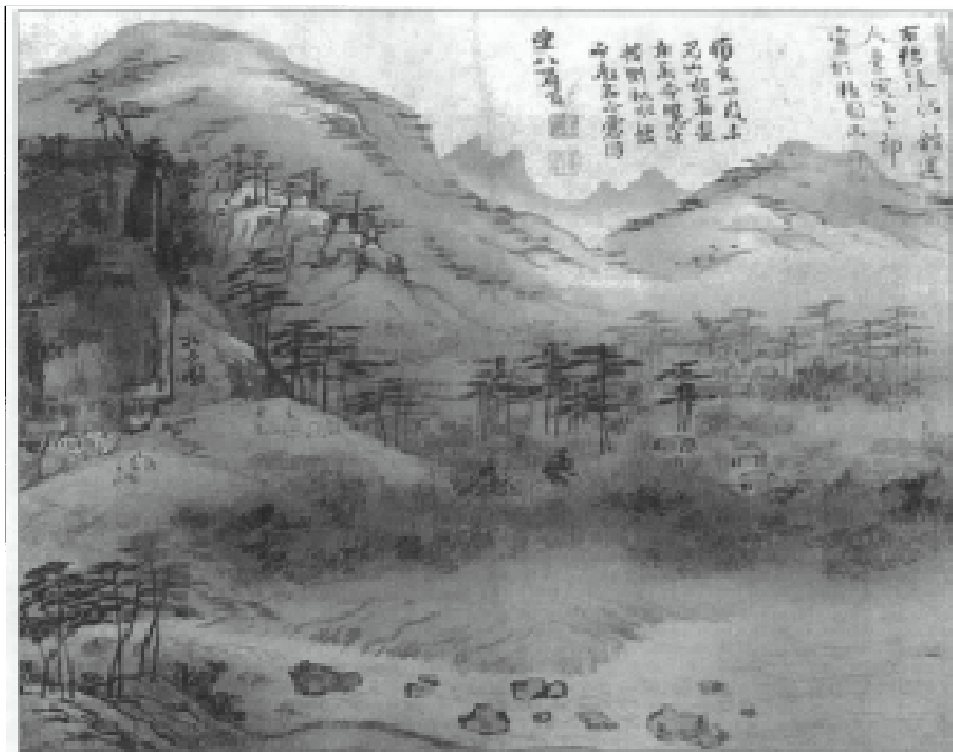
[크 립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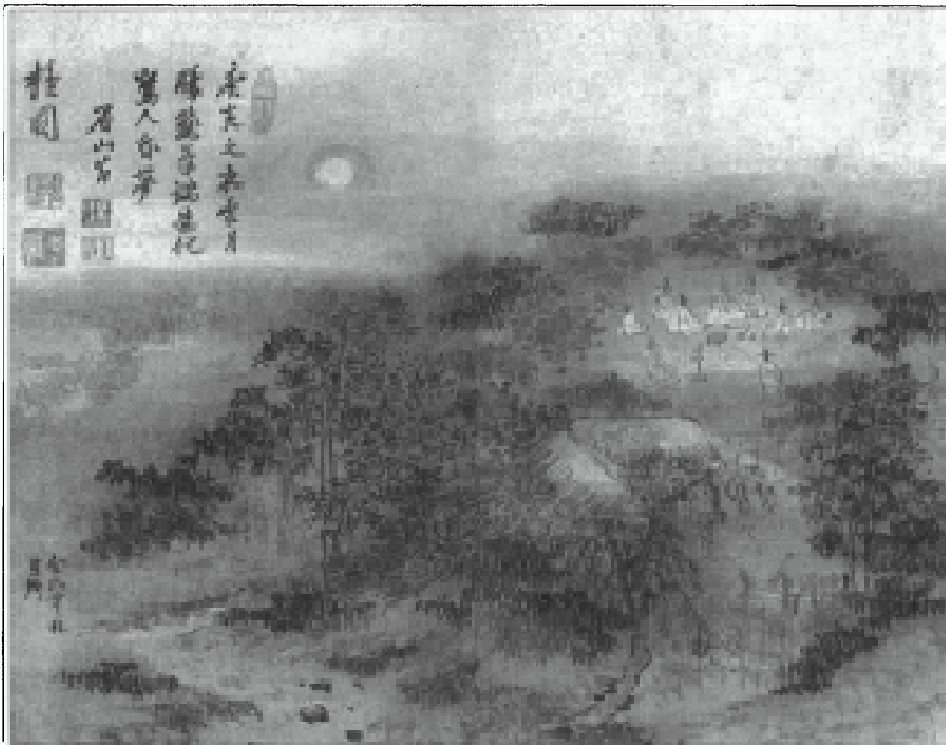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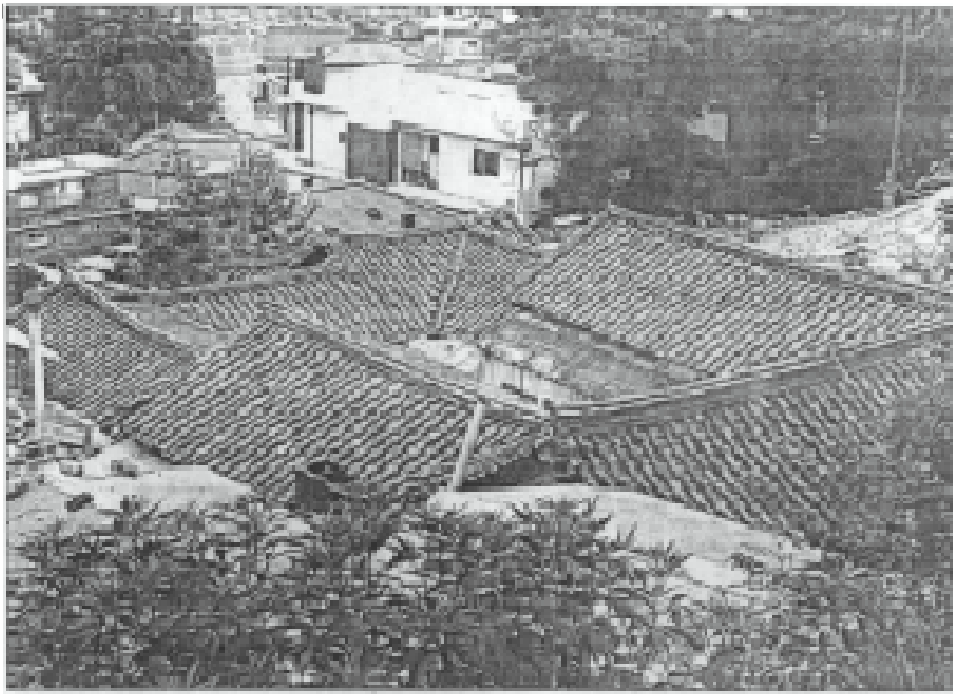
[그림 10]



[1 1 30]



[古 蹟 21]



[그림 22]